都市地域의 母子保健實態에 關한 研究

A Study on Status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an Urban Area

權 彛 赫	*Kwon, E-Hyock, M.D.*
金 泰 龍	*Kim, Tae-Ryong, M.D.*
朴 亨 鍾	*Park, Hyung-Jong, M.D.*
姜 吉 遠	*Kang, Kil-Won, M.D.*
洪 在 雄	*Hong, Jae-Woong, M.D.*
朴 淳 永	*Park, Soon-Young, M.P.H.*
李 容 旭	*Lee, Yong-Wook, M.P.H.*
尹 鳳 子	*Yun, Bong-Ja, M.P.H.*

서울大學校 醫科大學・保健大學院

COLLEGE OF MEDICINE AND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人口問題論集 別册 (第9號, 1969年)

Reprinted from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IPP

(Number 9, 1969)

都市地域의 母子保健實態에 關한 研究

A Study on Status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an Urban Area

權 彛 赫 *Kwon, E-Hyock, M.D.*

金 泰 龍 *Kim, Tae-Ryong, M.D.*

朴 亨 鍾 *Park, Hyung-Jong, M.D.*

姜 吉 遠 *Kang, Kil-Won, M.D.*

洪 在 雄 *Hong, Jae-Woong, M.D.*

朴 淳 永 *Park, Soon-Young, M.P.H.*

李 容 旭 *Lee, Yong-Wook, M.P.H.*

尹 鳳 子 *Yun, Bong-Ja, M.P.H.*

<목 次>

I. 緖　　論

全人口의 3分의 2以上을 차지하는 어머니와 嬰幼兒 및 兒童들의 健康은 健全한 人口의 資質을 造成하는 바탕이며 國土의 開發과 祖國의 近代化를 위한 人的「에너지」의 源泉이기도 하다.

따라서 母子의 保健은 現代의 豫防醫學이나 公衆保健學에 있어 核心的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나 世界의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母子保健에 있어「이미 알고 있는 事實」과「아는 事實을 實踐으로 옮기는 것」사이의 間隔은 아직도 充分하다 할 만큼 좁혀지지 않고 있어 學術的인 또한 行政上의 問題點으로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1].

先進諸國에서의 母子保健이라는 槪念은 公衆保健學의 發展과 步調를 같이하여 發展하였고 學術的인 前進은 매우 빠른 速度로 行政面에 反映되어 母子保健學의 發展은 곧 母子保健事業을 意味하게 되었다. 過多한 姙娠과 出産이 母性과 이미 出生한 子女들의 健康과 福祉에 미칠 影響을 考慮하여 또한 過大한 出産力이 社會의 安定과 人口의 健康에 미칠 수 있는 弊害에 대한 두려움은 곧 母子保健學에 家族計劃敎育을 編入시키고 母子保健事業에 家族計劃事業을 統合시킬 必要性에 直面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時代的인 要求에 발맞추기 위한 準備作業으로 世界保健機構는 近來에 家族計劃과 母子保健의 相互關係를 規定키 위한 專門會議를 屢次 가진 바 있다[2].

우리나라의 母子保健事業은 八·一五 解放後 歐美各國의 影響을 받아 점차로 그 體系를 찾고 內容을 갖추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六·二五 動亂으로 말미아마 體系的인 努力은 中斷되고 다른 모든 保健分野의 事業이 그러하듯이 救護와 緊急 戰時醫療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戰後 時間이 經過됨에 따라 援助에서 自立으로 또한 救護에서 自律的인 福祉事業으로 그 性格을 점차로 바꾸어 온 것만은 事實이다.

또한 政府에서는 1967年 以來 全國의 醫療惠澤이 稀薄한 地域의 住民을 對象으로 分娩介助를 提供하기 위한 構想이 推進되어 해마다 豫算이 增加되고 있는 實情이나 本格的인 母子保健事業으로의 發展은 아직도 遼遠한 느낌이 있을 뿐이다.

母子保健事業이 이와같이 不進한 反面 人口調節을 위한 家族計劃事業의 發展은 오히려 刮目할 만하며 1961年에 國家再建最高會議에 의하여 人口政策의 必要性에 관한 決定이 있었고 1962年에는 人口增加에 대한 對策으로 國民의 自律的인 姙娠調節을 支援하기 위한 家族計劃事業을 政府의 經濟開發計劃의 一環으로 採擇한 바 있다.

이에 따라 保健社會部는 1962年부터 事業計劃實施에 着手하였고 1963年 12月에 同部內에 家族計劃과 이에 關聯된 모든 事業을 統括하는 目的으로 母子保健課를 創設하였다[3].

그 後, 家族計劃事業의 發展은 比較的 順調로워 全國的인 機構의 確立, 行政體系의 整備, 人員의 訓練 및 再敎育, 啓蒙 및 敎育活動等 多彩로운 發展을 보았으나 反面에 急速한 事業成長에 따르는 許多한 問題點이 提起되고 있다.

그中 가장 重要한 問題의 하나는 國民의 家族計劃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을 促進시키고 自律的인 實踐을 正常化할 수 있는 母子保健事業의 育成이 等閑視되었다는 點일 것이다.

1) Wallace, H. M.: Health Services for Mothers and Children, p. ix, W. B. Saunders Company, Philadelphia, 1962
2) World Health Organization: Opening Address, Consultation on the Teaching of Family Planning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Schools of Public Health, Geneva, 21-26 August, 1969
3)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Republic of Korea: The Findings of the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1965, p. 58, December, 1965

公衆保健學의 觀點에서 家族計劃은 母子保健을 構成하는 重要한 部分임에 대하여는 再論의 餘地조차 없다[4).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組織, 運營되고 있는 母子保健事業에 家族計劃事業을 添加한 것이 아니고 이미 巨大한 規模로 發展, 運營된 家族計劃事業과 關聯시켜 母子保健事業을 强化, 發展시켜야 한다는 逆說的인 過程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敎育이나 行政面에서 兩 事業의 統合運營의 可否 및 統合이 可하다는 結論이 내려졌을 때의 그 節次等이 保健學上 또한 保健行政上의 重大한 問題로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

統合運營의 長點과 短點은 開發된 先進國家와 開發途上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그 相互比重이 달라 많은 學者들의 硏究와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다[5]. 後進國의 경우 統合運營의 長點의 比重이 短點의 그것보다 큼은 一般的인 定說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國情과 傳統, 思考方式의 差異等 許多한 要素의 支配를 받지 않을 수 없음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에 맞는 母子保健學 特히 巨大한 國家事業으로 팽창한 家族計劃事業의 虛點을 補完하고 開發된 福祉國家로의 發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韓國的인 母子保健學과 母子保健樹立은 短時日內에 풀어야 할 宿題로 登場하게 된 것이다.

公衆保健上의 모든 問題의 把握은 問題解決에 先行되어야 하며 母子保健도 이에서 除外될 수는 없다. 問題를 科學的으로 把握한다는 것은 科學的으로 設計되고 實施되는 實態調査 特히 近年에 發達한 「社會調査」 術式[6]에 根據를 둔 調査硏究에 依하지 않으면 안 됨을 우리는 經驗을 通하여 確信한다.

本 調査는 위에 略述한 바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宿題를 푸는 첫 試圖의 하나로 設計되었는 바 그 目的은 우리나라 都市居住 婦人들의 母子保健學上의 特性을 밝히고 이들의 知識과 態度 및 實踐狀況을 把握하여 앞으로 全國의 地域을 대상으로 하여 實施될 이와 類似한 調査 및 硏究의 基礎를 構築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母子保健事業이 必要로 하는 方向提示에 寄與코자 하는 데에 있다.

本 硏究는 서울 特別市 城東區 金北洞 一圓에 居住하는 3,171名의 婦人을 對象으로 한 것이며 現地調査에는 1968年 6月부터 10月에 이르는 約 4個月이, 資料處理와 分析, 報告書作成에 約 10個月, 都合 14個月이 消費되었다.

本 報告書는 同硏究의 第1次報告의 性格을 띤 것으로 硏究內容의 廣範圍함과 制限된 時間때문에 細密한 分析과 對照는 次後로 미루기로 한다.

本 調査資料의 分析과 報告書에 使用된 用語의 定義 몇 가지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으며 本 定義는 우리나라의 調査環境에 適合하도록 産婦人科學的인 定義를 修正한 것임을 付言한다.

1. 出生은 正常出産과 早産을 包含한다.
2. 正常出産은 姙娠 38週(9個月半)以後의 出産을 말한다.
3. 早産은 姙娠 29週(8個月)부터 38週(9個月半)까지의 出産을 말한다.
4. 死産은 姙娠 29週(8個月)以後의 死兒의 分娩을 말한다.
5. 人工姙娠中絶이란 姙娠週期에 關係없이 人工的인 造作을 가하여 姙娠을 中斷시키는 것을 말한다.
6. 自然流産이란 姙娠初期로부터 姙娠 28週(7個月末)까지의 自然的인 分娩을 말한다.

4) World Health Organization· Draft Report, Consultation on the Teaching of Family Planning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Schools of Public Health, Geneva, p. 1, 29 August, 1969

5) Wallace, H. M. et al: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Planning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Divisi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School of Public Health a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California (mimeograph)

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ct Finding with Rural People, 1953

Ⅱ. 調査對象 및 方法

A. 調 査 對 象

1964年 以來 서울特別市 城東區 一圓이 本 都市人口硏究會의 各種 硏究對象地域으로 되어 왔다.

城東區는 集中的 刺戟投與를 通하여 住民의 家族計劃에 대한 知識과 態度 및 實踐의 變化를 測定한 곳이고, 子宮內避姙方法의 受容性과 效果를 評價하기 爲하여 人的, 物的 資源이 投入되었으며 人口成長率의 測定을 爲한 出産力이 調査되었으며 近來에는 政府의 먹는避姙藥 普及計劃에 先行하여 먹는피임약의 避姙效果, 持續性 및 受容性 決定을 爲한 各種 計測이 이루어지기도 한 곳이다.

이미 家族計劃이 集中的으로 展開된 地域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開發되지 못한 母子保健事業과 既存하는 家族計劃과의 統合運營의 可能性을 模索하여 他에 示範코자 設計된 本 調査硏究事業의 對象地를 城東區에 選定한 것은 위와 같은 歷史的 背景에 緣由하는 것이다.

Table 1. Women Actually Interviewed against Prospective Respondents Reported

Name, tong	Number of women reported	Number of women interviewed
1	151	171
2	210	124
3	167	249
4	(286)	—
5	194	239
6	141	104
7	279	171
8	134	131
9	95	13
10	207	159
11	156	152
12	166	189
13	147	141
14	135	153
15	183	213
16	310	107
17	342	230
18	140	164
19	(229)	—
20	(288)	—
21	220	210
22	112	133
23	125	134
24	(173)	—
Total	4,590	3,187*

* Information given by 16 women out of these 3,187 turned out to be incoherent and not suitable for tabulation.

本 研究會에서 動員할 수 있는 人的, 物的, 財政的 資源 및 地理的與件을 勘案하여 本 調査研究의 對象地를 城東區 金北洞一圓에 局限한 것도 本研究의 精密度를 높이고 蒐集될 情報의 性格을 明確히 規定하기 爲한 措置였으며 實地 調査의 企劃과 進行過程을 略說하면 아래와 같다.

本 研究會는 于先 金北洞의 全體 統·班長에 依賴하여 名簿에 記錄되어 있는 49歲까지의 有配偶婦人의 數를 報告받아 이것을 集計한 바 4,590名이었다.

그러나 調査後 長期間에 걸친 集中的인 母子保健「써비스」投與를 前提로 한 本研究의 性格上 金北洞에 設置된 家族計劃相談所에서 比較的 距離가 먼 4個統(4, 19, 20, 25統)은 除外키로 하고 나머지 20個統에 居住하는 49歲까지의 有配偶婦人 全員(3,614名)을 對象으로 調査事業을 進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實際로 面接이 可能하였던 婦人은 總 3,189名에 達하였으며 그 統別內譯은 Table 1과 같다.

統·班長에 依하여 報告된 數字와 實地로 調査員이 出張하여 面接이 可能하였던 婦人數와의 사이에 큰 差異를 본 것은 前者의 報告의 信憑性이 그만치 稀薄한 때문으로 解釋될 수 밖에 없다.

한편 3,189名의 應答件數中 16件은 集計過程에서 資料가 不充實함이 밝혀져 本報告를 爲한 各種製表에서 除外되어 本報告의 資料는 總 3,171名의 婦人應答者가 提供한 情報에 그 基礎를 둔다.

B. 調 査 方 法

本 研究會에서는 1968年 6月初부터 本調査의 計劃 및 設計를 討議하여 우선 基礎資料로서 金北洞內에 居住하고 있는 滿 49세까지의 既婚婦人의 姓名, 年齡, 住所, 家口主 姓名을 統·班別로 調査해 줄 것을 金北洞長에게 依賴하는 한편 油印된 調査書草案을 가지고 調査員에 特殊訓練을 실시한 後 1968年 6月 25日부터 5日間 豫備調査(Pretest)에 들어갔다.

本 豫備調査期間에 調査本部의 研究員이 現地에 나가 應答者와 調査員의 面談을 參觀하였으며 現地參觀結果와 調査員自身의 現地經驗에 立脚하여 同年 7月 3日에 調査票의 樣式과 調査內容의 決定, 調査時 使用될 用語의 標準化(Standardization), 製表時의 便宜를 爲한 各 調査項目의 符號化 (Coding) 等의 作業이 進行되었다.

豫備調査時에 設定된 質問內容을 本 調査用으로 決定된 그것과 對比하면 아래와같다.

內 容	豫備調査	本 調 査
1. 夫人과 男便의 一般的 特性	31問	31問
2. 出産力 및 家族의 크기와 不姙에 對한 調査	24問	28問
3. 豫防接種에 關한 調査	16問	15問
4. 嬰兒榮養	8問	11問
5. 姙娠中 및 産後 攝食	7問	7問
6. 姙娠, 分娩, 死亡에 關한 調査	23問	25問
7. 産前管理, 分娩에 對한 知識, 態度 및 實踐에 對한 調査	7問	8問
8. 避姙實施狀況	—	2問
總	116問	127問

以上의 內容中 嬰幼兒에 관한 事項은 끝으로 낳은 子女에 局限하였다.

本部에서는 確定된 調査內容에 따라 調査員 11名에 대하여 再敎育을 실시하였고 2日間의 調査를 마

친後 다시 問題點을 檢討하여 發生된 問題에 對한 處理方法을 均一化하고 7月 21日부터 本 調査에 들어가 10月 12日에 現地調査가 完了되었다.

이 調査期間中 一定한 間隔을 두고 本部硏究員이 出張하여 調査의 進行을 監督하였으며 回收된 調査票의 記載內容이 不充實한 때에는 再調査를 實施케하여 調査活動의 充實을 꾀하였다. 1次의 訪問으로 面接이 不可能한 婦人은 一定期間後 再訪問토록 하였다.

本 調査過程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調査日程

6.10: 對象地域內 既婚婦人에 對한 事前調査 依賴
6.25~6.29: 豫備調査
7. 3: 調査書案 確定
7.16: 城東保健所長께 協助要請
7.18~7.20: 調査員訓練
7.21: 調査始作
10.12: 調査完了

또한 調査票의 蒐集은 아래와 같이 進行되었다.

調査의 進度

月 日	調査件數	再調査件數	累 計
7.26	148	—	148
7.30	214	65	297
8. 5	345	25	617
8.14	196	40	773
8.23	175	31	917
8.29	248	20	1,145
9. 3	193	19	1,319
9.17	363	16	1,666
9.25	1,057	48	2,675
10.15	512	28	3,159
10.20	28	—	3,187

Ⅲ. 對象婦人의 社會・文化活動과 生活程度

A. 婦人의 團體加入

本 調査의 對象이 된 3,171名의 婦人에게 婦人會, 稧, 同窓會, 어머니會, 師親會, 宗敎團體, 奉仕會等 社會, 宗敎 或은 文化團體加入 與否를 물었던 바 大部分의 婦人(87%)이 社會・文化團體에 加入치 않고 있었다(Table 2 參照).

B. 應答婦人의 文化「미디아」接觸

3,171名의 既婚婦人中 69%에 該當하는 2,193名이 「頻繁히」 또는 「間或」 新聞을 읽고 있으며 (Table 3), 80%에 該當하는 婦人이 「자주」 라디오放送을 聽取하고 다른 11%가 「가끔」이나마 라디오를 듣고 있음이 드러났다(Table 4).

婦人들의 社會·文化團體加入 活動이 低調인 反面, 各家庭에서 新聞, 라디오 等 報道「미디아」에 자주 接觸하고 있는 事實은 新聞을 보는 率보다는 라디오를 듣는 率이 높다는 現象과 아울러 注目할만 하다.

Table 2. Social Participation by Wife

Number of group participated	Number	Per cent
None	2,773	87.4
1 or 2	380	12.0
More than 2	18	0.6
Total	3,171	100.0

Table 3. Reading Newspaper

Frequency	Number	Per cent
Frequently	1,742	54.9
Occasionally	451	14.3
Never	978	30.8
Total	3,171	100.0

Table 4. Frequency of Listening to Radio

Frequency	Number	Per cent
Frequently	2,530	79.8
Occasionally	347	10.9
Never	294	9.3
Total	3,171	100.0

婦人들이 雜誌를 읽는 率(46%)이나 單行本 或은 小冊子를 읽는 率(19%)이 新聞을 읽는 率(69%)이나 라디오를 듣는 率(91%)보다 훨씬 낮음은 婦人들의 家庭에서의 讀書·文化活動이 低調이고 積極的인 生活技術 習得의 機會가 甚히 制限되어 있음을 示唆한다(Table 5, Table 6).

Table 5. Frequency of Reading Magazine

Frequency	Number	Per cent
Frequently	417	13.1
Occasionally	1,030	32.5
Never	1,724	54.4
Total	3,171	100.0

調査地域에서의 텔레비젼受像機의 普及은 低調임이 分明한 것은 調査對象婦人의 79%가 全혀 텔레비젼을 보지 않고 있음으로도 짐작이 되며(Table 7) 反面 約 71%에 該當하는 婦人이(Table 8) 映畵를 「자주」 또는 「가끔」이라도 觀賞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 地域에서의 視覺을 通한 情報傳達媒體로서 映畵 및 映畵館의 意義가 當分間은 텔레비젼의 그것에 比해서 큼을 示唆한다고 본다.

Table 6. Frequency of Pamphlet Reading

Frequency	Number	Per cent
Frequently	172	5.4
Occasionally	436	13.8
Never	2,563	80.8
Total	3,171	100.0

Table 7. Frequency of Seeing Television

Frequency	Number	Per cent
Frequently	399	12.6
Occasionally	264	8.3
Never	2,508	79.1
Total	3,171	100.0

Table 8. Frequency of Seeing Movies

Frequency	Number	Per cent
Frequently	184	5.8
Occasionally	2,082	65.6
Never	905	28.6
Total	3,171	100.0

C. 應答者의 社會·經濟的 地位

Table 9는 應答者 家庭의 社會·經濟的 地位를 應答者自身의 評價와 調査員의 評價에 依하여 上·中·下로 分類한 것인 바 大體的으로 應答者는 調査員이 보기 보다는 自己의 社會·經濟的 地位를 낮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即 調査員이 客觀的으로 觀察한 바에 依하면 全體婦人의 約 52%가 上流나 中流에 屬하나 應答者 自身의 觀點에서는 이 部類에 屬하는 婦人이 全體의 42%에 不過한 反面, 調査員의 評價에 依한 下流에 屬하는 婦人은 全體의 10%인데 應答者自身의 評價에 依하면 이보다 10%가 많은 58%가 이 部類에 屬한다. 위의 事實은 自身과 他人이 보는 生活程度에 對한 評價의 差異의 範圍를 엿보게 하는 資料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保健學的 或 社會科學的인 調査와 硏究企劃에 參考해야 할 事項의 하나라고 思料된다.

Table 9. Socio-economic Position of Respondent's Family

Rank	Respondent's appraisal		Interviewer's appraisal	
	Number	Per cent	Number	Per cent
Upper	55	1.7	89	2.8
Middle	1,217	40.3	1,556	49.1
Lower	1,839	58.0	1,526	48.1
Total	3,171	100.0	3,171	100.0

社會的·經濟的 地位에 있어 위와 같이 評價되는 應答者의 生活程度의 具體的인 內容을 應答者 家庭에 있는 物件 또는 施設別로 보면 Table 10의 資料와 같이 電氣利用은 99%의 家庭에서 이를 볼 수 있고 80%는 水道를 가지고 있었으며 99%에 있어서 自己所有의 便所가 있고 90%의 家庭에 라디오受信機가 있음을 알 수 있다. 85%의 婦人은 電氣다리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61%의 家庭에 新聞이 定期的으로 配達되고 있었다.

電氣配線이 72%밖에 안 되고 新聞購讀率이 13%, 雜誌의 規則的 購讀이 4%에 未達하는 서울特別市 零細民地域의 生活程度[1]에 比하면 서울特別市 城東區 金北洞의 本 調査地域의 生活水準 및 社會·經濟的 地位는 훨씬 上位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able 10. Objects Owned in the House

Object	Owned		Not owned		Total	
	Number	Per cent	Number	Per cent	Number	Per cent
Electricity	3,152	99.4	19	0.6	3,171	100.0
Electric iron	2,692	84.9	479	15.1	3,171	100.0
Own running water	2,522	79.5	649	20.5	3,171	100.0
Toilet	3,129	98.7	42	1.3	3,171	100.0
Telephone	331	10.4	2,840	89.6	3,171	100.0
Radio set	2,852	90.0	319	10.0	3,171	100.0
Newspaper subscribed regularly	1,918	60.5	1,253	39.5	3,171	100.0

Ⅳ. 姙娠 및 姙娠消耗

A. 現在 姙娠率.

本 調査地域에서 現在 姙娠率 12.8%를 얻었는 바(Table 11) 이는 1965年에 本 都市人口硏究會에서 實施한 刺戟投與後調査時 城東區 一圓에서 얻은 率 12.2%[2]보다 若干 높았다.

Table 11. Current Status of Pregnancy

Status	Number	Per cent
Currenly pregnant	406	12.8
Not pregnant	2,730	86.1
Uncertain	35	1.1
Total	3,171	100.0

B. 姙娠回數와 經驗率

本 硏究에서 調査된 婦人 3,171名中 80名은 姙娠한 經驗이 없으며 9名은 17回以上의 姙娠經驗을가지고 있음이 報告되었다. 가장 比率이 높은 姙娠經驗回數는 2回, 3回 및 4回로서 各 15%程度를 形

1) Kwon, E H., Kim, T.R. et al: A Study in Urban Slum Population, College of Medicine and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pp. 75~76, July, 1967

2) Kwon, E H. and Kim, T.R.: The Results and Findings of the Pre-Treatment Status Survey, Sungdong Gu Action-Research Project on Family Planning,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p. 36, June, 1965

成하고 있었다. 또한 10回以上의 姙娠經驗은 5%에 該當하는 162名에서 報告되었다(Table 12).

Table 12. Frequency of Pregnancy

Frequency	Number	Per cent
None	80	2.5
1 time	420	13.2
2 times	477	15.1
3 〃	471	14.9
4 〃	467	14.7
5 〃	370	11.7
6 〃	283	8.9
7 〃	214	6.7
8 〃	137	4.3
9 〃	90	2.8
10 〃	66	2.1
11 〃	37	1.2
12 〃	23	0.7
13 〃	10	0.3
14 〃	5	0.2
15 〃	6	0.2
16 〃	1	0.0
17 〃	5	0.2
18 or more	9	0.3
Total	3,171	100.0

本 調査結果 1966年에 實施된 全國家族計劃 實態調査에서 얻은 都市와 農村을 通한 全體地域의 姙娠經驗率과 比較할 때 未經驗率이 낮은 代身에(2.5%對 4.6%) 1回 乃至 3回의 姙娠經驗率은 越等히 높고 (43.2% 對 34.4%) 4回 乃至 6回 및 7回以上 經驗率에 있어서는 다시 全國率에 比해서 顯著히 낮음을(35.3% 對 40.0% 및 19.0% 對 21.0%)볼 수 있다. 비슷한 様相을 1966年 實態調査에서 얻은 都市地域의 姙娠經驗率과 比較할 때 볼 수 있어 1964年以來 本 都市人口硏究會에서 集中的인 啓蒙 및 指導活動을 展開한 城東區의 本 調査地域內의 姙娠經驗率이 3回以下로 集中되어 가는 傾向을 엿볼 수 있으며 全國의 都市地域에 比해서 7回以上의 多回數姙娠의 率이 적음을 示唆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Table 13).

Table 13. Pregnancies Experienced by Women in Study Area in Comparison with Women of Korea by 1966 KAP Survey

Frequency	Study in Sungdong Gu, Seoul City, 1968		1966 National KAP survey		
	Number	Per cent	Total	Urban	Rural
None	80	2.5	4.6%	3.1%	5.4%
1-3 times	1,368	43.2	34.4	33.2	34.9
4-6 times	1,120	35.3	40.0	39.8	40.0
7 times or more	603	19.0	21.0	23.9	19.7
Total (Number)	3,171	100.0	100.0% (3,368)	100.0% (1,074)	100.0% (2,294)

C. 年齡과 姙娠經驗率

姙娠經驗率은 19歲以下의 旣婚人의 80%에서 年齡의 增加에 따라 漸次로 늘어나서 45歲以上群에서 100%에 이르고 있으며 姙娠을 經驗하지 않은 婦人은 全體의 2.5%에 不過했다.

1回 乃至 3回 姙娠經驗率은 20～24歲群에서 가장 높은 88.2%를 보였고 年齡의 增加에 따른 遞減樣相을 보였고 4回 乃至 6回의 姙娠經驗率은 30～34歲群에서 가장 높았고(53.8%) 그 後 年齡의 增加에 따른 減少를 보였다. 總體的으로는 1回 乃至 3回 姙娠經驗婦人이 全體 調査對象婦人의 43.1%로서 가장 많았고 4回 乃至 6回의 姙娠을 經驗한 婦人은 35.3%로서 그 比率에 있어 次位를 차지하였고 19.1%에 該當하는 婦人은 7回以上 姙娠을 經驗한 것으로 報告되었다. Table 14에 따라 年齡別 姙娠經驗趨勢를 檢討함에 있어 19歲未滿群과 45歲以上群에 屬하는 對象婦人數는 各 5名 및 13名으로서 例數의 過少로 因하여 年齡別, 回數別 比率을 比較하기에 不適當함을 添記한다.

Table 14. Frequency of Pregnancy by the Women's Age

Age	Never	1-3 times	4-6 times	7 times or more	Total	Number
Under 19	20.0	80.0	—	—	100.0	5
20-24	7.4	88.2	3.4	1.0	100.0	296
25-29	4.0	73.4	19.5	3.1	100.0	892
30-34	1.5	31.3	53.8	13.4	100.0	933
35-39	0.7	16.6	45.3	37.4	100.0	685
40-44	0.6	12.1	34.2	53.1	100.0	347
45-49	—	16.6	41.7	41.7	100.0	12
50 or more	—	100.0	—	—	100.0	1
Total	2.5	43.1	35.3	19.1	100.0	3,171

D. 敎育과 姙娠經驗率

敎育이 姙娠回數에 決定的인 役割을 하고 있음이 Table 15에 記載된 百分率로써 明白히 示唆되고 있다. 即, 少數의 (1回 乃至 3回) 姙娠을 經驗한 率 및 姙娠 未經驗率은 大學(專門)以上 學歷群에서 가장 높아서 各 53.7% 및 4.0%였고 多數의(7回以上) 姙娠을 經驗한 率은 文盲群에서 가장 높아 35.5%로 計算되었다.

姙娠 未經驗率 및 少數姙娠 經驗率이 敎育程度의 上昇과 더불어 漸增하고 7回以上의 多回姙娠 經驗率이 學歷이 높아 감에 따라 大幅으로 減少됨은 刮目할만 하다.

Table 15. Frequency of Pregnancy by Women's Education

Frequency of pregnancy	Illiterate	Can read Korean letters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or college	Total
Never	1.3	1.2	2.1	3.1	3.2	4.0	2.5
1-3 times	26.5	30.1	41.5	45.1	48.5	53.7	43.1
4-6 times	36.7	40.3	37.6	33.2	31.4	30.5	35.3
7 times or more	35.5	28.4	18.8	18.6	16.9	11.8	19.1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umber	79	173	1,535	640	593	151	3,171

E. 姙娠消耗

本 調査의 대상이 된 3,171名의 婦人中 死產 즉 姙娠 제28週 以後에 일어난 胎兒死亡을 經驗한 부인은 총 52名에 達하였으며 그중 死產의 經驗이 한번 있었던 부인이 35名으로 가장 많고 5번이상 경험한 婦人도 3名이 기록되었다. 3,171名의 婦人이 經驗한 死產數는 도합 89건에 達하였으며 그 평균은 0.03건으로 계산되었다(Table 16).

Table 16. Frequency of Still-births

Frequency	Number	Per cent
None	3,119	98.3
1	35	1.1
2	7	0.2
3	5	0.2
4	2	0.1
5	1	0.0
6	2	0.1
7 or more	—	
Total	3,171	100.0

* Total number of still-births=89
Mean number of still-births=0.03

또한 本 調査에서 도합 711건의 自然流產이 報告되었다. 本調査에서는 自然流產을 姙娠 제28週 즉 7개월 以內에 自然的으로 중단된 姙娠을 말하며 한번의 自然流產을 經驗한 婦人의 數는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308名이며 流產回數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婦人의 數는 감소되어 최고로 5回의 自然流產(8名)이 기록되었다. 平均自然流產回數는 0.22回로 계산되었다(Table 17 參照).

Table 17. Frequency of Spontaneous Abortions Experienced

Frequency	Number	Per cent
None	2,175	85.6
1 time	308	9.7
2 times	94	3.0
3 〃	28	0.9
4 〃	13	0.4
5 〃	8	0.3
6 〃	1	0.0
7 〃	1	0.0
8 〃	1	0.0
More than 8 times	2	0.1
Total	3,171	100.0

* Total number of spontaneous abortion=711
Mean number of spontaneous abortion=0.22

本 調査에서는 姙娠期間에 관계없이 人爲的으로 姙娠을 중단시킨 것을 人工姙娠中絶로 규정하고 있다. 3,171名의 婦人應答者는 도합 2,999건의 人工姙娠中絶을 경험하였으며 그중 15.4%에 해당하

는 487名은 1回의 人工姙娠中絕을 경험하여 首位를 차지하고 있고 經驗回數가 2回, 3回, 4回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인의 수는 10.8%, 6.7%로 3.3%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平均 姙娠中絕 經驗數는 0.95回로 계산되었다(Table 18 참조).

Table 18. Frequency of Induced Abortions

Frequency	Number	Per cent
None	1,899	59.9
1 time	487	15.4
2 times	344	10.8
3 〃	213	6.7
4 〃	104	3.3
5 〃	63	2.0
6 〃	19	0.6
7 〃	12	0.4
8 〃	14	0.4
More than 8 times	16	0.5
Total	3,171	100.0

* Total number of induced abortion=2,999
Mean number of induced abortion=0.95

이상의 資料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다.

區　　分	件　　數	1人當平均値
死　　産	89	0.03
自然流産	711	0.22
人工姙娠中絕	2,999	0.95
出　　生	9,269	2.92
現在姙娠中	406	0.13
計(總姙娠數)	13,474	4.25

여기서 姙娠總數 13,474건이 Table 12에 기재된 13,494건과 다른 것은 最多回 經驗者에 대한 集計方法의 差異에 起因하는 것이다.

F. 姙娠中 副作用

姙娠中에는 前期 後期를 莫論하고 여러 種類의 合併症이 있을 수 있으나 本調査에서는 應答者 自身이 確認하여 대답할 수 있는 症勢 몇가지의 有無를 前, 後期로 나누어 물었으며 그 內容은 吐氣, 便秘, 手足浮症, 眼瞼浮症, 腹痛, 下血, 痙攣, 頭痛, 排尿障碍等으로 分類되었으며 이에 屬하지 않는 合併症은 「其他 症狀」欄에 記入되었다.

Table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姙娠 前半期에는 甚한 吐氣와 嘔氣가 가장 흔한 合併症으로 報告되었고(16.3%), 다음 便秘(2.5%)와 頭痛(1.5%)이 흔한 것으로 보이며 姙娠 後半期에는 「다리의 浮症」이 으뜸가는 合併症으로 報告되었으며(6.4%) 甚한 嘔氣와 吐氣(2.1%), 便秘(1.5%) 및 顔面浮症(1.5%)이 뒤따랐다.

姙娠 前半期에는 79.3%의 例數에 있어 아무 異常이 없었으며 姙娠 後半期에는 이보다 많은 84.5

%에서 아무런 合併症이 없었던 것으로 報告되었다.

Table 19. Complications during Last Pregnancy

Symptoms	Former 5 months		Latter 5 months	
	Number	Rate	Number	Rate
None	2,335	79.3	2,488	84.5
Severe nausea and/or vomiting	479	16.3	61	2.1
Constipation	75	2.5	45	1.5
Edema on legs	25	0.8	189	6.4
Edema on face	7	0.2	44	1.5
Obstinate abdominal pain	14	0.5	29	1.0
Vaginal bleeding	13	0.4	17	0.6
Convulsion	—	—	7	0.2
Severe headache	43	1.5	42	1.4
Dysuria	5	0.2	17	0.6
Others	87	3.0	111	3.8
Base and total	2,943	104.7*	2,943	103.6

Note: * Percentages exceed 100% because of the respondents who gave two or more complications.

V. 分娩環境과 諸與件

A. 分娩場所

總 3,171名의 調査對象婦人中 出生經驗이 있는 2,943名의 應答者의 最終 出生兒를 中心으로 이들의 分娩場所를 알아 본 결과 Table 20에서와 같이 半數以上인 63.6%가 家庭分娩이고 31.7%에 該當하는 934例가 病院 또는 產科專門醫의 醫院에서 分娩되었고 3.3%가 助產院에서 分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少數이나마 (41名, 1.4%) 一般醫院에서의 分娩例도 報告되었다.

Table 20. Place of Last Delivery

Place	Number	Per cent
Home	1,872	63.6
Ob-Gyn. clinic (including hospital)	934	31.7
Midwife's house	96	3.3
General practitioner's clinic	41	1.4
Total	2,943	100.0

B. 婦人의 生活程度와 分娩場所의 選擇

調査對象 婦人의 生活程度는 分娩場所 選擇에도 많은 影響을 미침이 本 硏究結果 判明되었다. 卽 Table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調査員에 依하여 上流, 中流, 下流의 生活程度에 屬한다고 判定된 婦人들이 各其 一般醫院, 產婦人科專門醫의 病醫院, 그리고 助產院等을 그들의 最終兒의 分娩場所로 擇한 比率은 生活程度가 上에서 下로 갈수록 낮아지고 各自의 家庭을 分娩場所로 擇한 比率은 反對

로 生活程度가 떨어질수록 높아감이 證明된 것이다.

全體分娩數의 63.6%에 該當하는 分娩이 各 家庭에서 敢行되었음은 注目할 만한 事實이라 하겠다.

Table 21. Place of Last Delivery by Socio-economic Position of Family Appraised by Interviewer

Place of delivery	Upper class	Middle class	Lower class	Total
Home	35 (41.6)	833 (56.7)	1,004 (72.3)	1,872 (63.6)
Ob.-Gyn. clinic (or Hospital)	42 (50.0)	565 (38.5)	327 (23.5)	934 (31.7)
Midwife's house	5 (6.0)	45 (3.1)	46 (3.3)	96 (3.3)
General practitioner's clinic	2 (2.4)	26 (1.7)	13 (0.9)	41 (1.4)
Total	84 (100.0)	1,469 (100.0)	1,390 (100.0)	2,943 (100.0)

C. 婦人의 教育程度와 分娩場所

最終出産 場所 選擇에 母性의 敎育程度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常識으로 推測되나 그 程度를 알아보기 爲하여 各 敎育背景群에 屬하는 婦人中 一般醫院, 產婦人科專門醫의 病醫院, 助產院, 自家等 4個部類에 該當하는 婦人의 實數 및 比率을 計算하여 Table 22를 作成하였다.

姙婦의 自宅에서 分娩한 比率은 文盲婦人의경우 가장 높아서 84.2%였는데 婦人의 敎育程度가 높아 갈수록 거의 規則的으로 減少되어 國文解得群의 83.9%, 國民學校群의 75.7%, 中學校 經歷所持者의 58.0%, 高等學校 經歷 所持者의 38.6%를 거쳐서 大學(專門包含) 敎育背景群의 19.1%에 달한다.

Table 22. Place of Last Delivery by Women's Education
(Per cent within parenthesis)

Education	GP's clinic	Ob.-Gyn. clinic.	Midwives' house	Home	Total
Illiterate	—	9 (11.8)	3 (4.0)	64 (84.2)	76 (100.0)
Can read Korean letters	2 (1.2)	22 (13.1)	3 (1.8)	141 (83.9)	168 (100.0)
Primary school	16 (1.1)	287 (19.8)	49 (3.4)	1,096 (75.7)	1,448 (100.0)
Middle school	8 (1.4)	214 (36.5)	24 (4.1)	340 (58.0)	586 (100.0)
High school	11 (2.1)	302 (56.5)	15 (2.8)	206 (38.6)	534 (100.0)
University or college	4 (3.1)	100 (76.3)	2 (1.5)	25 (19.1)	131 (100.0)
Total	41 (1.4)	934 (31.7)	96 (3.3)	1,872 (63.6)	2,943 (100.0)

이에 反하여 一般醫院이나 產婦人科 專門醫의 病醫院에서 分娩한 婦人의 比率은 이들의 敎育程度의 上昇에 따라 規則的으로 增加함을 볼 수 있어 一般醫院인 경우 文盲群의 0%에서 부터 大學群의

3.1%로 增加하였고 産婦人科專門醫의 경우 文盲群의 11.8%에서 大學의 76.3%로 增加한다.

助産院에서 分娩을 한 件數는 都合 96名으로서 全體婦人의 3.3%에 不過하며 敎育程度別 比率의 分布도 多少 不規則하나 이는 이 部類에 屬하는 例數의 寡少에 原因이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D. 分娩時 使用된 방포

分娩時 아기를 받기 爲해서 바닥에 까는 材料에 對한 대답을 分類하여 Table 23을 얻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세멘트 包袋가 使用되었으며(44.7%), 비닐布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24.0%). 그밖에 무대(8.5%), 油紙 또는 新聞紙(5.1%), 침구(포대기)(3.6%), 廣木(2.0%), 가마니 或은 짚(1.6%) 等等이 報告되었으며 아무런 방포나 物件을 깔지 않고 分娩을 한 例도 5.9%에 達하는 83例가 記錄되어 있다.

Table 23. Kinds of Delivery Sheet

Sheet	Number	Per cent
Cement bag paper	629	44.7
Vinyl sheet	337	24.0
Linen bag	119	8.5
None	83	5.9
Oiled paper or newspaper	72	5.1
Bedding	51	3.6
Cotton sheet	28	2.0
Straw or straw bag	23	1.6
Not remembered	23	1.6
Others	42	3.0
Total	1,407*	100.0

* Excludes the deliveries attended by GP, Ob.-Gyn. doctor or midwife.

E. 分娩介助人

最終兒 分娩時 介助人이 누구였는가를 알기 爲해서 「누가 끝의 아이를 받아 주셨읍니까」라는 質問을 던졌다.

Table 24. Attendant at Last Delivery

Attendant	Number	Per cent
Ob-Gyn. doctor	975	33.1
Mother or mother-in-law	763	25.9
Midwife	493	16.8
Neighbors or relatives	335	11.4
None	144	4.9
Husband	141	4.8
General practitioner	68	2.3
Others	24	0.8
Total	2,943	100.0

産婦人科 専門醫가 介助했다는 대답을 33.1%에 해당하는 975名의 婦人에게서 얻어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친 어머니 또는 시어머니로서 25.9%, 助産員이 介助한 경우는 16.8%, 이웃이나 親戚인 경우가 11.4%였으며, 男便(4.8%), 一般醫(2.3%)도 介助人으로 報告되었다(Table 24).

産婦人科 専門醫, 一般開業醫, 助産員을 分娩介助를 담당할 수 있는 廣義의 専門職業人으로 看做할 때 専門職業人과 非専門的인 門外人이 分娩을 介助한 경우로 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區　　分	例　　數	百 分 率
專門的인 分娩介助人 (専門醫, 一般醫, 助産員)	1,536	52.2
門外人	1,239	42.1
其他(未詳)	24	0.8
介助人 없이 分娩한 경우	144	4.9
計	2,943	100.0

即 專門以外 人員이 分娩介助를 하는 경우가 42.1%에 達한다.

F. 生活程度와 分娩介助人

最少 1回以上 生兒를 分娩하였다고 報告한 2,943名의 婦人 應答者의 生活程度를 應答者 自身의 意見에 依하여 上, 中, 下로 나누면 上流에 51名, 中流에 1,202名, 下流에 1,690名이 屬하게 됨은 前述한 바와 같다.

最終分娩時 이들이 選定한 專門的, 非專門的 分娩介助人의 比率의 分布를 應答婦人이 陳述한 生活程度別로 比較하여 Table 25을 얻었다.

例컨대 分娩介助人으로서 産科 専門醫를 擇한 婦人의 比率은 上流群에 있어 52.9%에 達하나 生活程度가 낮아짐에 따라서 41.8%(中流), 26.4%(下流)로 떨어진다. 또한 助産員을 介助人으로 選擇한 例의 比率도 上流의 33.3%가 中流의 19.6%를 거쳐서 下流의 경우 16.8%로 減少된다.

이에 反해서 男便, 親母나 媤母, 이웃이나 親戚의 分娩介助를 받은 例의 比率은 生活程度와는 逆的인 相關을 갖어 生活程度의 下降과 아울러 增加하는 傾向이 거의 規則的이었다.

또한 아무런 介助人이 없이 分娩을 敢行한 婦人의 比率도 生活程度가 낮아질 수록 많아짐을 알게 된다.

Table 25. Selection of Attendant at Delivery by Socio-economic Position of Family Evaluated by Respondent Herself

Attendant	Upper class	Middle class	Lower class	Total
No body	1 (2.0)	39 (3.2)	104 (6.2)	144 (4.9)
General practitioner	1 (2.0)	24 (2.0)	43 (2.5)	68 (2.3)
Ob-Gyn. doctor	27 (52.9)	502 (41.8)	446 (26.4)	975 (33.1)
Midwife	17 (33.3)	235 (19.6)	241 (14.3)	493 (16.8)

Husband	—	40 (3.3)	101 (6.0)	141 (4.8)
Mother(in-law)	4 (7.8)	251 (20.9)	508 (30.1)	763 (25.9)
Neighbors or relatives	1 (2.0)	100 (8.3)	234 (13.8)	335 (11.4)
Others	—	11 (0.9)	13 (0.7)	24 (0.8)
Total	51 (100.0)	1,202 (100.0)	1,690 (100.0)	2,943 (100.0)

分娩介助人을 專門的인 그리고 非專門的인 介助人으로 나누고 또한 아무런 分娩介助를 받지 않은 경우와 其他의 경우(分娩人이 未詳인 경우)를 設定하여 上, 中, 下로 分類된 應答婦人의 生活程度別 分布를 보기 爲하여 Table 26을 設計하였다.

即 專門職業人의 介助를 받은 分娩의 率은 生活程度와 正的인 相關을 갖었으며 非專門人의 介助를 받은 分娩의 比率과 介助人없이 分娩한 婦人의 比率은 生活程度와 逆相關關係를 이루고 있음이 分明하다.

Table 26. Selection of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Attendants at Delivery, by Socio-economic Level of Family as Evaluated by Respondent Herself (Per cent within parentheses)

Attendants	Upper class	Middle class	Lower class	Total
Professionals (Doctors and midwives)	45 (88.2)	761 (63.4)	730 (43.2)	1,536 (52.2)
Non-professionals	5 (9.8)	391 (32.5)	843 (49.9)	1,239 (42.1)
Others	—	11 (0.9)	13 (0.7)	24 (0.8)
Without attendance	1 (2.0)	39 (3.2)	104 (6.2)	144 (4.9)
Total	51 (100.0)	1,202 (100.0)	1,690 (100.0)	2,943 (100.0)

分娩時에 專門的인 또한 非專門的인 介助人을 選定한 率, 介助人이 없이 分娩을 한 率이 應答婦人의 生活程度에 影響을 받는 樣相은 調査員에 依하여 應答者의 生活程度가 評價되어 分類되었을 경우에도 類似한 傾向을 보였는 바 그 內容은 Table 27과 Table 28에 記載된 바와 같다.

G. 敎育程度와 分娩介助人의 選擇

應答婦人이 그들의 最終分娩時 分娩介助人의 選定에 婦人들의 敎育程度가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 하는 疑問은 Table 29에 記載된 바 各 敎育群에 屬하는 婦人을 100%로하여 專門的인 그리고 非專門的인 介助人을 選定하였거나 介助人없이 分娩을 한 比率의 比較에서 얻을 수 있다.

即 婦人(產母)의 敎育程度가 높을수록 專門的介助人을 選定한 率이 높아지고 있고 非專門人의 介助를 받았거나 介助人이 없이 分娩을 敢行한 婦人의 率은 反對로 敎育程度의 上昇과 더부러 急激히 떨어짐을 볼 수 있어 이 樣相은 應答者의 生活程度가 分娩介助人選定에 미치는 影響에서 보는 그것과 흡사하였다.

Table 27. Selection of Attendants at Delivery by Socio-economic Position of Family According to Evaluation by the Interviewers

Attendants	Upper class	Middle class	Lower class	Total
None	1 (1.2)	58 (4.0)	85 (6.1)	144 (4.9)
General practitioner	1 (1.2)	34 (2.3)	33 (2.4)	68 (2.3)
Ob-Gyn. doctor	44 (53.7)	592 (40.4)	339 (24.3)	975 (33.1)
Midwife	23 (28.1)	282 (19.2)	188 (13.5)	493 (16.8)
Husband	—	54 (3.7)	87 (6.2)	141 (4.8)
Mother (in-low)	10 (12.1)	308 (21.0)	445 (31.9)	763 (25.9)
Neighbors or relatives	3 (3.7)	123 (8.4)	209 (15.0)	335 (11.4)
Others	—	15 (1.0)	9 (0.6)	24 (0.8)
Total	82 (100.0)	1,466 (100.0)	1,395 (100.0)	2,943 (100.0)

Table 28. Selection of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Attendants at Delivery, by Socio-economic Level of Family as Evaluated by Interviewers (Per cent within parentheses)

Attendants	Upper class	Middle class	Lower class	Total
Professionals (Doctors & midwives)	68 (83.0)	908 (61.9)	560 (40.2)	1,536 (52.2)
Non-professionals	13 (15.8)	485 (33.1)	741 (53.1)	1,239 (42.1)
Others	—	15 (1.0)	9 (0.6)	24 (0.8)
Without attendance	1 (1.2)	58 (4.0)	85 (6.1)	144 (4.9)
Total	82 (100.0)	1,466 (100.0)	1,395 (100.0)	2,943 (100.0)

Table 29. Selection of Attendants at Delivery by Women's Educational Background

Attendants	Illiterate	Can read Korean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or Collage	Total (Base)
Professionals (Doctors & midwives)	22.3	23.2	39.3	60.7	81.5	91.6	52.2(1,536)
Non-professionals	65.9	59.5	53.7	35.9	17.2	7.6	42.1(1,239)
Others	—	1.2	1.3	0.5	—	—	0.8 (24)
Without attendance	11.8	16.1	5.7	2.9	1.3	0.8	4.9 (144)
Total (Base)	100.0 (76)	100.0 (168)	100.0 (1,448)	100.0 (586)	100.0 (534)	100.0 (131)	100.0 (2,943)

前項에서 專門的인 分娩介助를 받지 못한 1,401例의 應答者의 경우 그 理由를 알아보면 Table 3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數의 婦人이(525名, 37.3%) 必要를 느끼지 않았다고 하며 거의 비슷한 比率의 婦人이 (34.7%) 必要는 하지만 그런데 쓸 경비가 없어서 專門的인 介助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밖의 事由로는「갑자기 낳는 바람에」(9.5%),「귀찮아서」(8.9%),「家族(男便, 媤父母등)이 反對해서」(2.0%),「病院이나 醫院이 너무 멀어서」(1.8%)等이 記錄되었다.

Table 30. Reasons for Not Having Attended by Professional Person at Delivery

Reason	Number	Per cent
Not necessary	525	37.3
No money to spend	489	34.7
Too urgent	133	9.5
Didn't want to	125	8.9
Opposed by family	28	2.0
Hospital was too far away	26	1.8
Others	81	5.8
Total	1,407*	100.0

* Excludes the deliveries attended by GP, Ob-Gyn. doctor or midwife

H. 臍帶切斷 用具와 그 消毒

分娩節次 및 手技에 있어서 産婦人科醫나 一般醫, 助産員等이 現代醫學이 認定하는 方法을 使用하였으리라는 것은 當然히 認定할 수 있으므로 生兒分娩經驗을 갖인 總 2,943名의 婦人中 最終兒 分娩時 非專門人이 이를 介助하였다고 報告된 1,407名(2,943名에서 專門的인 分娩介助人이 介助한 1,536 例를 除外한 數)의 경우 탯줄(臍帶)을 자를 때 使用된 器具의 種類, 器具의 消毒與否, 分娩時 바닥에 깐 材料等을 알아본 결과 大體的으로 極히 非衛生的임을 알게 되었다.

臍帶切斷時 가장 많이 使用된 器具는 가위로서 96.5%를 占하고 其他 칼, 낫, 잇발, 실 或은 毛髮, 수숫대 等이 報告되었으며 1.0%에 해당하는 14名은 記憶이 確實치 않은 것으로 報告 되었다 (Table 31).

Table 31. Instruments Used to Cut Umbilical Cord

Instrument	Number	Per cent
Scissors	1,359	96.5
Knife	16	1.1
Sickle	6	0.4
Human teeth	1	0.1
Thread or hair	1	0.1
Millet stalk	5	0.4
Others	5	0.4
Not remembered	14	1.0
Total	1,407*	100.0

* Excludes the deliveries attended by GP, Ob-Gyn. doctor or midwife.

다음 臍帶切斷時 使用된 器具類의 消毒與否에 關한 質問에 大部分(82.2%)의 경우 消毒이 안되었음을 報告하였고 應答者 생각에 消毒을 하였어도 「앨코홀」等 消毒劑로 닦았거나(10.9%) 물로 씻은 경우(0.5%)가 있어 매우 不充分하고 不確實하였음이 示唆된다. 少數이나마 끓인 경우(3.8%)와 불에 태운 경우(0.6%)가 報告되었다(Table 32 參照).

Table 32. Sterilization of Instrument Used to Cut Umbilical Cord

Sterilization	Number	Per cent
Not sterilized	1,157	82.2
Wiped with alcohol or mercurochrome etc.	154	10.9
Boiling	52	3.8
Burned	9	0.6
Washed with water only	7	0.5
Not remembered	28	2.0
Total	1,407*	100.0

* Excludes the deliveries attended by GP, Ob-Gyn. doctor or midwife.

I. 胎盤의 處理

最少 1回以上 出生을 經驗한 2,943名의 婦人들의 最終 出生 2,943件에 있어 胎盤이 어떠한 方法으로 處置되었는 가를 알아 보기 爲하여 調査員은 다음과 같은 質問을 던졌다.

「끝의 아이를 낳으신 후 그 胎盤은 어떻게 하셨읍니까?」

이에 對하여 34.4%에 該當하는 1,013個의 胎盤은 燒却되어 가장 높은 比率을 構成하였으며 次位가 病醫院에서 處置된 것으로 31.6%였으며 「물에 띄워보냈다」고 報告한 例는 22.2%에 該當하는 652件이었다. 胎盤處置의 其他 方法은 「땅에 묻었다」(5.0%), 「助産院에서 處理했다」(4.7%) 外에 「其他 方法으로 處置되었다」(0.2%) 等으로 報告되었다(Table 33 參照).

Table 33. Disposal of Placenta

Disposal	Number	Per cent
Burned up	1,013	34.4
Disposed of at hospital	931	31.6
Threw into water	652	22.2
Buried in ground	146	5.0
Disposed by midwife	139	4.7
Not remembered	56	1.9
Otherwise	6	0.2
Total	2,943	100.0

여기서 「其他方法으로 處置되었다」고 대답한 6名의 婦人들이 실제로 어떠한 方法을 使用하였는 가를 調査한 結果 3例에 있어서 「태워서 물에 띄웠다」고 하였고 1例는 「싸서 그냥 버렸다」고 하였으며 「집에 갖이고 와서 물에 띄웠다」와 未詳이 各 1例씩이었다.

J. 産兒에 든 醫療費

서울 特別市의 一隅에 位置하는 城東區 金北洞 一圓의 住民이 子女分娩에 支出하는 金額은 Table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無」인 경우가 43.8%에 해당하는 1,288名에 達하고 있어 住民의 經濟水準과 關聯하여 母子保健上 重大한 問題點을 提示한다고 보겠다. 總 2,943名의 應答者中 最終 出生兒 分娩時 2,000원 乃至 5,000원을 지출한 婦人이 全體의 26%에 해당하는 771名에 달한다. 500원에서 2,000원을 支出했다고 報告한 婦人 및 5,000원 以上을 支出한 婦人은 이와 比較도 안 될 정도의 少率을 차지함이 밝혀졌다.

Table 34. Medical Expenses for Delivery Itself

Expenses	Number	Per cent
None	1,288	43.8
Less than 500 won	60	2.0
501- 1,000 〃	96	3.3
1,001- 1,500 〃	137	4.7
1,501- 2,000 〃	210	7.1
2,001- 3,000 〃	329	11.2
3,001- 5,000 〃	442	15.0
5,001- 10,000 〃	269	9.1
10,001-15,000 〃	51	1.7
15,001-20,000 〃	24	0.8
20,001-30,000 〃	16	0.6
More than 30,000 〃	21	0.7
Total	2,943	100.0

K. 手術 및 器具使用

最少限 1回以上의 出生 經驗이 있고 最終兒 出生을 圍繞하는 母子保健上의 諸般資料를 提供한 2,943名의 婦人에게 最終兒 分娩時의 順産與否를 물었던 바 91%에 해당하는 2,678名의 婦人이 順調로운 分娩을 하였음을 報告했고 2.3%에서 「眞空分娩」 또는 「鉗子分娩」을 經驗하였음이 報告되었으며 15名의 婦人은 (0.5%) 帝王切開術로 胎兒가 分娩되었음이 記錄되였다(Table 35).

Table 35. Physical Difficulties Experienced in Delivery of Last-born Child

Difficulties	Number	Per cent
Easy delivery	2,678	91.0
Somewhat difficult	176	6.0
Vacuum or forceps delivery	67	2.3
Don't know the use of vacuum or forceps	7	0.2
Cesarean section	15	0.5
Total	2,943	100.0

Ⅵ. 初經. 初産 및 不姙

A. 初經年齡

總 3,171名의 應答者중 15세때 初經을 본 婦人이 전체의 27.3%에 해당하는 864名으로서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次位는 16세때 初經을 본 婦人으로서 23.1%에 해당하는 773名이 報告되었다. 다음은 14세때 初經을 본 婦人으로서 17.1%를 이루고 있다. 平均 初經年齡은 15.5세로 계산되었다(Table 36 참조).

Table 36. Age at Menarche of the Women

Age at menarche*	Number	Per cent
10 or less	4	0.1
11 years	5	0.2
12 〃	55	1.7
13 〃	223	7.0
14 〃	542	17.1
15 〃	864	27.3
16 〃	733	23.1
17 〃	428	13.5
18 〃	240	7.6
19 〃	44	1.4
20 〃	22	0.7
21 or more	11	0.3
Total	3,171	100.0

Mean=15.46

* Age by month is not accounted

B. 初産年齡

한번이상 出生을 經驗한 2,943名의 婦人에 있어서 처음 出産의 平均年齡이 23.2세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가장 흔한 初産年齡은 23세 및 24세로 전체의 26%에 해당하였으며 다음으로 흔히 보고된 初産年齡은 21세 및 22세로서 23%를 이루었고 그 다음이 25세 및 26세로서 17%를 이루고 있다.

換言하면 19세부터 26세에 이르는 기간에 92%에 해당하는 婦人이 初産을 경험하고 있어 처음 出産과 관련되는 母子保健上의 모든 施策이 19세부터 26세에 이르는 年齡層에 集中되어야 한다는 示唆를 얻게 되었다(Table 37).

C. 不 姙

應答婦人의 姙娠可能與否를 알기 爲한 調査員의 質問內容은 다음과 같다.

「어떤 婦人들은 手術을 했거나 신체의 어떤 고장으로 어린애를 낳을수 없는 경우가 있읍니다. 夫人께서는 어떠하신지요? 만일 낳을 수 없으시던가 확실히 모르신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 質問에 對해서 88.7%에 該當하는 2,814名은 自己가 姙娠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6.7%에 해당하는 211名은 自己가 不姙狀態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나머지 4.6%에 해당하는 146名은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Table 38).

Table 37. Women's Age at First Delivery

Age at first delivery	Number	Per cent
Under 16 years	7	0.2
17–18 〃	121	4.1
19–20 〃	464	15.8
21–22 〃	687	23.3
23–24 〃	761	25.9
25–26 〃	499	16.9
27–28 〃	255	8.7
29–30 〃	99	3.4
31–32 〃	31	1.1
33–34 〃	13	0.4
35–36 〃	4	0.1
Over 37 〃	2	0.1
Total	2,943	100.0

Mean=23.17

Table 38. Current Fecundity by Respondent's Own Opinion

Current fecundity	Number	Per cent
Fertile	2,814	88.7
Sterile	211	6.7
Uncertain	146	4.6
Total	3,171	100.0

自己나 男便이 不姙狀態에 있다고 대답한 211名의 婦人에게 그 理由를 물었던 바 가장 큰 比率을 이루고 있는 34.2%에 해당하는 婦人에 있어서 男便이 不姙手術(精管切除手術)을 받았음이 밝혀졌고 婦人自身이 不姙手術를 받은 경우가 22.3%로서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5.2%의 婦人은 閉經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7.1%에 해당하는 15名의 婦人은 結婚後 避姙을 實施하지 않았는데도 3年以上 姙娠經驗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24.6%에 해당하는 52名의 婦人은 流産을 한 後 또는 出産後 避姙을 實施하지 않는데도 5年以上 姙娠이 되지 않는다고 報告하였다(Table 39).

또한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대답한 146名에 對해서 그 理由를 알아본 結果는 Table 40과 같다. 即 18.5%에 해당하는 27名의 婦人이 「結婚後 避姙을 實施하지 않는데도 3年以上 계속 姙娠이 안된다」고 대답하였으며 58.2%에 해당하는 85名의 婦人이 「流産後, 또는 出産後 避姙을 實施하지 않는데도 5年이상 임신이 안된다」고 報告하였다.

그러므로 實地로 不姙 또는 準不姙狀態에 있는 婦人을 再評價하면 Table 41에 記載된 資料를 얻을 수 있다.

Table 39. Reasons for Sterility

Reasons	Number	Per cent
Husband vasectomized	72	34.2
Wife sterilized	47	22.3
Cessation of menstruation	11	5.2
Not pregnant for more than 3 years since marriage without contraception	15	7.1
Not pregnant for more than 5 years since last pregnancy without contraception	52	24.6
Others	14	6.6
Total	211	100.0

即 3,171名의 婦人中 確實히 姙娠可能하다고 생각한 婦人이 2,814名으로서 全體의 88.8%를 차지하였고 4.1%에 해당하는 婦人은 確實히 姙娠不可能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中 半數 以上(2.3%)의 경우 男便이 精管切除手術을 받았으며 또한 相當數(1.5%)의 例數에 있어서 婦人自身이 卵管結紮手術을 받았으며 閉經이 된 婦人도 0.3%를 占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7.1%에 해당하는 227名의 婦人에 있어서 疑似不姙이 報告되었는데 그 事由로는 「結婚後 避姙을 實施치 않았는데도 3年以上 계속 姙娠이 안된다」(1.3%)든가 「流産後, 또는 出産後 避姙을 實施치 않았는데도 5年以上 姙娠이 안된다」(4.3%)든가를 들 수 있으며 또한 이에는 1.5%에 해당하는 「其他事由」가 包含되었다. 「不姙」「疑似不姙」을 合하면 調査된 全體婦人의 11.2%를 이룬다.

Table 40. Reasons for Uncertain Fecundity

Reasons	Number	Per cent
Not pregnant for more than 3 years since marriage without contraception	27	18.5
Not pregnant for more than 5 years since last pregnancy without contraception	85	58.2
Others	34	23.3
Total	146	100.0

Table 41. Sterility and Suspected Sterility by Women's Opinion

Fecundity	Number		Per cent	
Fertile	2,814		88.8	
Sterile	130		4.1	
Husband vasectomized		72		2.3
Wife sterilized		47		1.5
Cessation of menstruation		11		0.3
Sterility suspected	227		7.1	
Not pregnant for more than 3 years since marriage without contraception		42		1.3
Not pregnant for more than 5 years since last pregnancy without contraception		137		4.3
Others		48		1.5
Total	3,171		100.0	

또한 參考로 3,171名의 婦人中 「姙娠이 可能하다」고 대답한 2,814名을 除外한 나머지 357名에 있어서 醫學的인 診斷을 받았는가의 與否을 살펴 본 결과 66.4%에 該當하는 婦人이 診斷을 받지 않았음이 判明되었다(Table 42).

Table 42. Confirmation of Fecundity by Physician If Sterile or Uncertain.

Consultation	Number	Per cent
Did not consult	237	66.4
Consulted	120	33.6
Total	357	100.0

姙娠可能 與否에 關하여 自己나 男便이 醫學的인 診斷을 받은 일이 있다고 대답한 120例의 夫婦가 婦人을 通해서 報告한 受診結果는 Table 43과 같다.

Table 43. Results of Consultation about Fecundity

On wife's side:

Diagnosis	Number	Per cent
Did not consult	14	11.7
No abnormality	54	45.0
Anomaly of hymen	3	2.5
Malformation of uterus	1	0.8
Growth anomaly of uterus	7	5.8
Salpingitis	9	7.5
Salpingiectomized	3	2.5
Hormonal unbalance	1	0.8
Anomaly of cervical mucus	—	—
Hysterectomized or tubes ligated	20	16.7
Others	8	6.7
Total	120	100.0

On husband's side:

Diagnosis	Number	Per cent
Did not consult	73	60.8
No abnormality	44	36.7
Stenosis in seminal duct	—	—
Venereal disease	—	—
Impairment of coition	—	—
Anomaly of sperm	1	0.8
Tuberculosis of organ	—	—
Others	2	1.7
Total	120	100.0

Ⅶ. 姙娠과 出產에 關한 知識과 態度

A. 姙娠生理에 관한 知識의 水準

產前管理의 分娩에 對한 知識, 態度 및 實踐狀況을 量的으로 測定하는 試圖는 別로 報告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資料蒐集 및 分析에 客觀性을 유지하기가 至難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本硏究會에서는 母子保健에 關한 調査地域內 住民의 知識과 態度評價를 數量化하는 첫 試圖로 印刷한 質疑書에 依하여 用語를 統一하여 몇가지 質問을 하였던 바 그中의 하나는 다음과 같이 標準化되었다.

「夫人께서는 어머니로서 아기를 姙娠하고 달이 차서 낳고 그후 몸조리를 해야하는데 그 구체적인 方法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對하여 壓倒的인 多數가(64.3%) 「들어서 알지만 자신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24.6%에 該當하는 782名의 婦人이 「꽤 많이 알고 있다」고 自信있는 대답을 하였다. 2.8%의 婦人은 「전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Table 44 參照).

Table 44, Knowledge on Physiology and Care of Pregnancy and Delivery

Knowledge	Number	Per cent
A little but not to sure	2,307	64.3
Know sufficiently	782	24.6
Can guide other women	263	8.3
Know nothing	89	2.8
Total	3,171	100.0

B. 婦人의 敎育程度와 知識의 水準

Table 45. Knowledge on the Physiology and Care of Pregnancy by Respondent's Education

Education	Know nothing	A little but not to sure	Know sufficiently	Can guide others	Total
Illiterate	2 (2.5)	67 (84.8)	7 (8.9)	3 (3.8)	79 (100.0)
Can read Korean letters	3 (1.7)	133 (76.9)	26 (15.0)	11 (6.4)	173 (100.0)
Primary school	50 (3.2)	1,074 (70.0)	333 (21.7)	78 (5.1)	1,535 (100.0)
Middle school	15 (2.3)	384 (60.0)	180 (28.1)	61 (9.6)	640 (100.0)
High school	15 (2.5)	318 (53.6)	189 (31.9)	71 (12.0)	593 (100.0)
University or college	4 (2.6)	61 (40.4)	47 (31.1)	39 (25.9)	151 (100.0)
Total	89	2,037	782	263	3,171

全體 應答 婦人 3,171名中 各 學歷群에서 產前後 管理方法이나 姙娠生理에 關해서 「전연 모른다」, 「들어서 알지만 자신 없다」, 「꽤 많이 알고 있다」, 「다른 어머니들을 지도해 줄 수 있다」等의 대답을 한 婦人의 比率을 學歷群別로 比較하여 Table 45를 얻었다.

여기서 注目할 만한 結果는 各 學歷群에 屬하는 婦人中 「들어서 알지만 자신 없다」는 대답을 한 婦人의 百分率이 學歷의 上昇과 더부러 減少되고 있는 反面 「꽤 많이 알고 있다」, 또는 「다른 어머니를 지도 해 줄 수 있다」고 報告한 應答者의 比率은 學歷의 上昇과 더부러 規則的으로 增加하고 있는 事實이라고 생각된다.

C. 姙娠과 分娩에 관한 知識源

이어 本硏究會의 調査員이 던진 質問은 다음과 같다.

「夫人께서는 그러한 知識을 어디서 처음으로 얻으셨읍니까?」

產前管理나 分娩에 關한 知識은 「시어머니나 어머니한테서 처음 얻었다」고 報告한 婦人이 最多數인 2,288名으로 72.1%를 占하였다. 이러한 知識을 이웃이나 親知한테서 얻었다고 報告한 婦人이 數的으로 次位를 차지하여 377名에 達하였고 (11.9%), 其他 知識源으로는 專門書籍(3.7%), 醫師(2.0%) 男便(2.0%), 學校(1.7%), 助產員·看護員·保健所指導要員(1.3%), 新聞·雜誌 또는 라디오等의 「매스·콤」(0.7%)等이 報告된 바 있다.

「시어머니」나 「어머니」가 知識源으로서 차지하는 比重이 큰은 母子保健에 關한 知識 普及 方法을 構想함에 있어 重要한 資料의 하나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直接 姙娠과 出產을 맡을 世代 自體에 對한 敎育과 啓蒙이 必要함은 勿論이려니와 이들에게 至大한 敎育的, 啓蒙的 影響을 미치는 上位世代 特히 「시어머니」나 「어머니」에 對한 保健敎育을 組織化함은 이에 못지 않게 重要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醫師, 學校, 男便, 助產員, 看護員等이 姙娠과 出產에 關한 知識源으로서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적어지는 바 姙娠婦에게 正確한 知識을 傳達할 수 있는 如斯·專門職業人들의 活動을 더욱 組織化하고 强化할 必要를 切感하게 되는 바이다. 또한 新聞, 雜誌, 라디오等 「매스·콤」이 이 分野에서 取하고 있는 役割이 比較的 微弱함은 우리나라 「保健敎育」이 아직 「매스·콤」을 效率的으로

Table 46. Source of the Knowledge on Pregnancy and Delivery

Source	Number	Per cent
Mother-in-law or mother	2,288	72.1
Neighbors or relatives, friends	377	11.9
Special books	116	3.7
Doctors	65	2.0
Husband	65	2.0
School	59	1.7
Midwives, nurses, or field-workers	40	1.3
Newspaper, magazine or radio	22	0.7
Not remembered	4	0.1
Mother's class	—	—
No particular source	109	3.4
Others	26	1.1
Total	3,171	100.0

利用하지 못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으로 保健事業과 弘報敎育事業과의 有機的인 相互關係의 發展에 있어 많은 問題點을 提示하는 것으로 思料된다(Table 46).

D. 母子保健의 必要性에 關한 認識

總 3,171名의 應答婦人中 91.7%에 達하는 2,908名이 「姙娠, 分娩, 産褥에 對하여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곳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한 婦人도 4.2%에 達하였다(Table 47 參照).

다시 「夫人께서는 그러한 姙娠, 分娩, 産褥에 對하여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質問에 對해서 「알고있다」고 대답한 婦人은 23.2%에 해당하는 735名에 不過하였으며 大部分(76.8%)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Table 48).

Table 47. Necessity of Facilities Giving Education on the Health of Mothers and Children

Necessity	Number	Per cent
Necessary	2,908	91.7
Not necessary	129	4.1
Don't know	134	4.2
Total	3,171	100.0

Table 48. Recognition of Existence of Facilities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Recognition	Number	Per cent
Don't know	2,436	76.8
Know	735	23.2
Total	3,171	100.0

Table 49. Name of Places for Getting Assistance in the Knowledge of Respondents

Name of place	1st answer	2nd answer	Total	Per cent
Health centers	635	13	648	44.1
Clinics	58	46	104	7.1
Hospitals	7	12	19	1.3
F.P. consultation station	7	3	10	0.7
Ob-Gyn's clinic	10	5	15	1.0
Midwives	—	2	2	0.1
YWCA hall	1	—	1	0.1
YMCA hall	3	3	3	0.2
Newspaper article	1	—	1	0.1
Unclear	13	654	667	45.3
Total	735	735	1,470	100.0

姙娠과 分娩에 관하여 지도나 「써비스」를 받을 수 있는 場所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735名의 婦人中 保健所에 言及한 婦人은 44.1%에 達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이 一般病院으로 7.1%, 綜合病院 1.3%, 産婦人科醫院이 1.0%等의 順이었으며 YWCA나 YMCA, 또는 新聞記事等을 말한 婦人도 若干名 있었으나 場所를 1個所만을 言及한 應答者, 그리고 言及했어도 그 대답이 分明치 못한 婦人이 45.3%나 되어 一般的으로 母子保健에 관한 지도를 받을 心要性을 認定하는 婦人의 比率이 全應答者의 92%나 되는 反面에 大部分의 婦人은 어디서 이러한 지도를 받아야 좋을지 조차 모르고 있어 意慾水準과 具體的인 知識水準의 隔差가 甚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Table 49 參照).

E. 保健所利用意慾

保健 特히 母子保健에 關한 技術과 知識에 關한 問議를 할 수 있고 指導를 받을 수 있는 法的機關으로서 保健所를 中心으로 한 全國的인 保健網이 있으나 保健所를 利用할 意慾이 어느 程度인지, 利用할 意思가 없으면 그 理由는 무엇인지를 알아 보기 爲하여 本硏究會에서는 다음과 같은 質問을 던졌다.

即 「지금 各 保健所에서 어머니와 어린이의 건강 相談을 하고 있는데 利用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라는 質問에 對해서 84.1%에 該當하는 2,668名의 婦人이 「利用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고 15.9%는 「利用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Table 50). 保健所를 利用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한 婦人 503名은 比率로 볼 때 그다지 높지 않으나 이미 設立되어 있는 機關을 利用치 않겠다고 하는 理由는 注目할 價値가 있으므로 다시 그 理由를 캐 묻기로 하였다.

Table 50. Willingness to Utilize the Health Center for the Health of Mother and Children

Willingness	Number	Per cent
Want to	2,668	84.1
Don't want	503	15.9
Total	3,171	100.0

그中 41.5%의 婦人은 「아이가 다 자라서」, 또 11.5%는 「아이가 없어서」 保健所의 健康相談 및 指導事業을 利用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21.5%는 「아이를 더 갖기를 願치 않아서」 또는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保健所를 利用할 意思가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少數이나마(5名) 「保健所는 不潔하고 不親切하다」고 하였고 「바쁘고 귀찮아서」 保健所利用을 꺼리는 應答者도 29名이나 되었다. 이러한 理由를 들어 保健所利用의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婦人의 數가 비록 많지 않다 하더라도 保健所의 利用度를 높히기 爲한 保健計劃의 修正 乃至 改編을 考慮할 時 參酌해야 할 事項이라고 믿는다(Table 51).

「만일 앞으로 保健所나 相談所에서 姙婦와 어린이의 健康을 위한 短期 特殊강의가 있다면 參席하시겠읍니까?」라는 質問에 約 52%의 婦人은 積極 參席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3,171名의 應答婦人中 1割에 該當하는 319名은 參席할 意思가 없음을 밝혔다(Table 52 參照).

그 理由를 調査해 본 결과 319名의 婦人中 54%에 해당하는 應答者는 講習에 參席할 必要가 없다고 하였으며 27.4%는 「아이를 갖기를 願치 않는다」 또는 「姙娠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귀찮고 興味가 없다」는 婦人도 13名이나 記錄되었다(Table 53).

Table 51. Reasons for Having No Intention to Utilize Health Centers

Reasons	Number	Per cent
Want no more child or sterile	108	21.5
Unnecessary		
Know enough	10	2.0
Healthy (No problem in health)	6	1.2
Go to hospital	14	2.7
Child was grown up	209	41.5
No child	58	11.5
Too busy or troublesome	29	5.8
Too far from health center	12	2.4
No interest	11	2.2
Health center is unclean and unkind	5	1.0
Indefinite	6	1.2
Shyness	6	1.2
Others	11	2.2
Unknown (No response)	18	3.6
Total	503	100.0

Table 52. Intention to Attend Short Term Classes at Health Center

Intention	Number	Per cent
Certainly would like to attend	1,643	51.8
Want to but actually it will be difficult	1,209	38.1
No intention	319	10.1
Total	3,171	100.0

Table 53. Reasons for Not Wishing to Participate in Classes at Health Center

Reasons	Number	Per cent
Want no more child or sterile	87	27.4
Unnecessary		
No explanation	98	30.9
Children are grown up	56	17.7
Know enough	12	3.8
No child or pregnancy	6	1.9
Too busy or troublesome	5	1.6
No interest	8	2.5
Respondent is weak	2	0.6
Others	5	1.6
Unknown (No response)	40	12.0
Total	319	100.0

F. 病院을 利用코자 하는 意慾

病院分娩의 意義가 應答者에 依하여 理解되고 있는 程度를 밝히기 爲하여 調査員은 「만일 夫人께서 또 아이를 낳게 된다면 可能하면 病院에서 낳고 싶으십니까?」라고 물었는데 應答婦人의 90.8%는 可能하면 病院에서 낳고 싶다고 하였으나 9.2%에 해당하는 292名은 「病院에서 낳기를 願치 않는다」고 하였다(Table 54).

Table 54. Intention of Having Deliveries at Hospitals in Future

Intention	Number	Per cent
Would like to, if possible	2,879	90.8
Do not want	292	9.2
Total	3,171	100.0

病院에서 分娩하기를 希望하지 않는 292名의 婦人을 對象으로 그 理由를 알아 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즉, 106名은 「항상 順産을 하니까」 病院에서 아기를 낳을 必要가 없다고 하였으며 54名은 「家庭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하였고 「病院이 싫다」는 婦人도 45名이나 되었다. 「費用이 많이 든다」는 事實을 지적한 婦人도 11名이나 되었고 「病院에 가기가 부끄러워서」 病院에서 아기를 낳기를 꺼려하는 婦人도 27名이 記錄되었다(Table 55).

Table 55. Reasons for Not Wishing to Have Deliveries at Hospitals

Reasons	Number	Per cent
Easy delivery always	106	36.3
Home delivery is more comfortable	54	18.5
Don't like hospital	45	15.4
Shyness	27	9.2
Expensive	11	3.8
Want no more child or sterile	26	8.9
No fear to labor, because herself is midwife	5	1.7
Others	9	3.1
Unknown (No response)	9	3.1
Total	292	100.0

萬一 앞으로 姙娠하였을 경우 合併症의 治療를 爲한 機關으로 應答婦人이 생각한 것은 産婦人科 專門病醫院이 가장 많았으며(95.0%), 一般病院도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나(2.2%), 保健所, 助産員, 漢醫院, 藥房 等을 利用하겠다는 婦人은 極히 드물었다(Table 56 參照).

Table 56. First Choice of Medical Facility for the Care of Complications to Occur during Future Pregnancy

Facilities	Number	Per cent
Ob-Gyn. clinic	3,012	95.0
General practitioner's clinic	69	2.2
Health center	15	0.5
Midwives house	14	0.4
Herb doctor's office	12	0.4
Drug store	10	0.3
Anywhere, near by	33	1.0
Others	6	0.2
Total	3,171	100.0

Ⅷ. 産前受診 및 産前後 攝食

A. 産前受診回數

總 3,171名의 應答者中 出生經驗이 있는 2,943名의 婦人에 對해서 그들의 最終 出生兒를 姙娠하였을 時 醫學的인 診察 乃至 檢査를 받은 일이 있는지 與否를 조사한 결과 53.1%에 該當하는 1,562名의 婦人은 한번도 病院에서 診察을 받은 일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注目할 만한 事實이며(Table 57) 保健所에서 受診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 率은 97.5%로서 産前保護에 있어 保健所 利用者가 거의 없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Table 58)

病院에서 診察을 받은 率은 1回가 가장 높아 9.9%를 이루었고 回數가 많아 짐에 따라 그 比率이 漸減하나 10回以上 檢診을 받은 婦人도 5.6%에 해당하는 166名에 達하고 있음은 注目할 만 하다.

Table 57. Frequency of Prenatal Check-up at Hospital or Clinic during Last Pregnancy

Frequency	Number	Per cent
Never	1,562	53.1
1 time	292	9.9
2 times	272	9.2
3 〃	242	8.2
4 〃	106	3.6
5 〃	116	4.0
6 〃	61	2.1
7 〃	53	1.8
8 〃	50	1.7
9 〃	23	0.8
10 〃	60	2.0
11 or more	106	3.6
Total	2,943	100.0

極少數의 婦人은 最終兒 姙娠時에 助産員한테서 1回以上 檢診을 받았음이 밝혀졌으며(2.0%) 그 回數는 1回 乃至 3回가 大部分(1.5%)이였다(Table 59).

産前保護를 爲하여 漢醫院에서 受診한 婦人도 1.6%에 해당하는 少數例가 發見되었다(Table 60).

以上의 資料에서 保健所 利用度가 거의 助産院이나 漢醫院의 利用度와 비길 수 있을 정도로 低調함은 記憶할 만한 事實이거니와 이보다 利用度가 높은 病醫院의 경우도 46.9% 程度에 不過함은 우리나라 母子保健의 現實에 대한 端的인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 있겠다.

病·醫院 및 保健所, 助産院, 漢醫院, 等을 産前醫療를 받을 수 있는 「醫療機關」으로 暫定的으로 規定해 놓고 이 모든 機關을 단 한번이라도 利用한 일이 있는 應答者를 「利用者」라고 치더라도 이 모든 機關을 合쳐서 그 「利用度」를 볼 때 50.6% 程度로 極히 低調임을 우리는 Table 61에 記載된 百分率로서 判斷할 수 있다.

Table 58. Frequency of Prenatal Check-up at Health Center during Last Pregnancy

Frequency	Number	Per cent
Never	2,870	97.5
1 time	13	0.5
2 times	6	0.2
3 〃	6	0.2
4 〃	5	0.2
5 〃	3	0.1
6 〃	3	0.1
7 〃	5	0.2
8 〃	10	0.3
9 〃	7	0.2
10 〃	5	0.2
11 or more	10	0.3
Total	2,943	100.0

Table 59. Frequency of Visiting Midwife's Office during Last Pregnancy

Frequency	Number	Per cent
Never	2,884	98.0
1 time	22	0.7
2 times	17	0.6
3 〃	7	0.2
4 〃	2	0.1
5 〃	2	0.1
6 〃	—	—
7 〃	1	0.0
8 〃	—	—
9 〃	1	0.0
10 〃	5	0.2
11 or more	2	0.1
Total	2,943	100.0

Table 60. Frequency of Visiting Herb Doctor during Last Pregnancy

Frequency	Number	Per cent
Never	2,837	98.4
1 time	17	0.6
2 times	14	0.5
3 〃	5	0.2
4 〃	4	0.1
5 〃	2	0.1
6 〃	1	0.0
7 〃	—	—
8 〃	—	—
9 〃	—	—
10 〃	—	—
11 or more	3	0.1
Total	2,943	100.0

Table 61. Frequency of Visiting Medical Facilities during Last Pregnancy

Frequency	Number	Per cent
Never	1,455	49.4
1 time	306	10.4
2 times	283	9.6
3 〃	249	8.4
4 〃	114	3.9
5 〃	126	4.3
6 〃	67	2.3
7 〃	58	2.0
8 〃	61	2.1
9 〃	34	1.2
10 〃	69	2.3
11 or more	121	4.1
Total	2,943	100.0

Table 62. Reasons for Not Visiting Medical Facilities during Last Pregnancy

Reasons	Number	Per cent
Not necessary (no abnormalities)	1,233	84.7
No money to spend (poverty)	134	9.2
Too busy	17	1.2
Oppsition of families	15	1.0
Didn't know adequate clinic	10	0.7
Troublesome	10	0.7
Other reasons .	36	2.5
Total	1,455	100.0

前項의 質問에서 姙娠期 또는 産前期에 診察 또는 醫療의 目的으로 病·醫院, 保健所, 助産院(員), 漢醫院等을 包含하는 廣義의 「醫療機關」을 訪問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 1,455名의 婦人의 경우 그 事由를 알아 본 結果 Table 62에 記載되어 있는 여러가지 대답을 얻었다. 即 84.7%에 達하는 大部分의 婦人이 『아무 異狀이 없으므로』 訪問의 必要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9.2%에 해당하는 134名의 婦人은 貧困으로 因해서 醫療機關을 방문치 못하였음을 示唆하였으며 그밖의 事由로는 「너무 바빠서(시간이 없어서)」(1.2%), 「家族의 反對때문에」(1.0%), 「適當한 場所를 몰라서」(0.7%) 等을 볼 수 있었다.

B. 婦人의 學歷과 産前受診

産前診察을 爲하여 廣義의 「醫療機關」을 訪問한 回數를 應答者의 敎育程度別로 Table 63에 依해 따져 볼 때 學歷이 婦人들의 醫療機關 利用度에 미치는 影響이 甚大함을 알게된다. 即 醫療機關을 단 1回도 訪問한 經驗이 없는 婦人의 比率은 文盲者인 경우 85.6%의 高率을 보이는데 이率은 學歷의 上昇과 더부러 下降하여 國民學校 學歷群의 63.6%, 中學校 學歷群의 38.3%, 高等學校 學歷群의 20.0%를 거쳐 大學 및 專門校 學歷群의 7.6%에 達하고 있다.

姙娠 全期間을 通하여 少數回 即 1回 乃至 2回밖에 醫療機關을 利用하지 않은 率의 樣相은 多少 不規則하여 文盲者의 7.9%에서 漸次 上昇하여 中學校群의 25.1%에 達하였다가 高等學校, 專門·大學으로 學歷이 더 올라감에 따라 이에 該當하는 比率은 다시 떨어짐을 볼 수 있다.

이에 反하여 3回以上 10回에 이르는 回數의 訪問을 經驗한 婦人의 경우 그 比率은 學歷의 上昇과 一致하여 上昇함을 볼 수 있다(Table 63).

Table 63. Frequency of Visiting Medical Facilities during Last Pregnancy by Their Education

Education	Never	1~2 times	3~4 times	5~6 times	7~8 times	9~10 times	11 or more	Total	Base
Illiterate	85.6	7.9	3.9	—	—	1.3	1.3	100.0	76
Can read Korean	76.1	11.9	6.0	2.4	0.6	0.6	2.4	100.0	168
Primary school	63.6	20.1	7.8	3.0	2.3	1.5	1.7	100.0	1,448
Middle school	38.3	25.1	17.8	7.7	4.8	3.1	3.2	100.0	586
High school	20.0	21.0	19.7	14.6	6.4	8.6	9.7	100.0	534
University or college	7.6	9.1	21.4	16.8	17.6	12.2	15.3	100.0	131
Total	49.4	20.0	12.3	6.6	4.1	3.5	4.1	100.0	2,943
Base	1,455	589	363	193	119	103	121	2,943	

C. 最終兒의 次順別 産前受診率

産前診察을 받을 目的으로 「醫療機關」을 訪問하는 率이 該當兒(最終兒)가 몇번째 아이인가에 따라 顯隔히 다름은 한번도 醫療機關을 利用한 일이 없는 婦人의 率이 該當兒가 第1兒(첫아기)인 경우에 가장 낮고 (33.2%), 該當兒의 次順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率이 높아지는 것으로도 反證이 된다(Table 64).

醫療機關을 利用한 婦人에 있어서 모든 訪問回數의 경우 即 1~2回, 3~4回, 5~6回, 7~8回, 9~10回, 11回以上 等으로 區分하여 보더라도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第1兒에서 第6兒以上으로 出生順序가 進行됨에 따라 이에 該當하는 婦人의 率이 떨어짐을 볼 수 있었다.

産兒의 回數가 進展됨에 따라 産前診察을 받는 率이 低下됨은 母體의 産前保護에 對한 關心度가

따라서 低下됨을 示唆하는 것으로 家族計劃과의 關聯에 있어서 母子保健上의 問題點을 提起하는 것으로 注目할 價値가 있는 資料라고 생각된다.

Table 64. Frequency of Visiting Medical Facilities by the Birth Order of the Last-born Child

Birth order	Never	1~2 times	3~4 times	5~6 times	7~8 times	9~10 times	11 or more	Total	Base
First	33.2	24.3	16.3	7.5	6.1	4.5	8.1	100.0	572
Second	43.6	23.5	13.8	7.6	3.1	5.3	3.1	100.0	608
Third	49.1	19.5	12.4	6.1	5.7	3.6	3.6	100.0	646
Fourth	58.5	17.2	10.1	6.3	2.0	2.5	3.4	100.0	525
Fifth	59.9	16.2	9.6	6.0	3.3	2.0	3.0	100.0	304
Sixth or over	67.4	14.6	8.4	4.5	2.4	1.0	1.7	100.0	288
Total	49.3	20.0	12.4	6.6	4.1	3.5	4.1	100.0	2,943
Base	1,455	589	363	193	119	103	121	2,943	

D. 產前診療의 所要經費

그러면 城東區內에 있는 本硏究地域의 住民이 產前醫療 및 檢診에 어느 程度의 經費를 支出하고 있는가?

出生經驗을 갖인 2,943名의 婦人中 最終兒姙娠時 全혀 經費支出이 없었다고 대답한 婦人이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支出하였다 해도 1,000원 以下인 경우가 大部分으로서 全體의 32.7%에 達하고 있으며 高額의 經費를 產前診療에 消費한 婦人은 金額의 上昇과 더부러 그 數도 急激히 減少되었다(Table 65). 이로써 大體로 產前養護에 支出되는 金額이 全無 或은 微微함을 알 수 있다.

Table 65. Expense for Prenatal Check-up during Last Pregnancy

Expense	Number	Per cent
None	1,568	53.3
Less than 1,000 won	961	31.7
1,001— 2,000 〃	225	7.6
2,001— 3,000 〃	103	3.5
3,001— 5,000 〃	36	1.3
5,001—10,000 〃	30	1.0
10,001—15,000 〃	4	0.1
15,001—20,000 〃	5	0.2
20,001—30,000 〃	4	0.1
More than 30,000 〃	7	0.2
Total	2,943	100.0

E. 敎育程度와 產前診療 經費支出

다음 敎育程度는 產前診察에 支出되는 費用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하는 疑問에 答하고자 Table 66이 設計되었다.

應答者의 敎育程度는 文盲者에서부터 國文解得可能,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專門·大學校等 6個 學歷群으로 나누고 支出金額은 無支出에서 30,000원 以上에 이르는 7個 等級으로 配列하여 이에 해당하는 婦人 應答者의 百分率을 學歷群別로 觀察하였다.

우선 注目을 끄는 것은 經費 無支出者의 率이다. 이 率이 文盲者의 86.8%로 부터 大學 및 專門의 學歷所持者의 12.2%로 줄어드는 것은 學歷의 上昇과 거의 比例的으로 産前醫療 및 檢診에 支出되는 經費가 增加함을 反證한다. 그리고 支出經費의 多寡를 莫論하고 該當金額 支出婦人의 率이 學歷이 높아짐에 따라 增加함에는 一驚을 禁할 수 없다.

Table 66. Expenses for Prenatal Check-up by Women's Education

Education	None	Less than 1,000won	1,001～2,000	2,001～5,000	5,001～15,000	15,001～30,000	More than 30,000	Total	Base
Illiterate	86.8	13.2	—	—	—	—	—	100.0	76
Can read Korean	79.7	16.1	1.8	1.8	—	0.6	—	100.0	168
Primary school	67.6	26.5	3.2	1.8	0.5	0.2	0.2	100.0	1,448
Middle school	42.7	42.2	9.1	5.0	0.8	0.1	0.1	100.0	586
High school	23.0	43.6	18.1	10.9	3.2	0.6	0.6	100.0	534
University or college	12.2	45.8	19.8	17.6	4.6	—	—	100.0	131
Total	53.3	32.7	7.7	4.7	1.1	0.3	0.2	100.0	2,943
Base	1,568	961	225	139	34	9	7	2,943	

F. 生活程度와 産前診療 經費支出

産前 診療에 支出된 經費內譯을 應答者의 生活程度와 連結하여 檢討할 때 生活程度가 높을수록 支出되는 經費가 많음은 常識으로 推測이 可能하나 이를 具體的으로 把握한 資料가 稀貴함에 비추어 本硏究에 本項이 挿入된 것은 앞으로의 類似한 性格을 띤 硏究開發에 重大한 意義를 지니는 것으로 思料된다.

生兒出産의 經驗이 있는 2,943名의 婦人中 아무런 經費도 支出한 일이 없다고 報告한 應答者는 53.3%에 達하였으며 1,000원 以下의 經費를 支出한 例는 全體의 32.7%를 占하여 經費支出者中 가장 높은 比率을 形成했으며 1,001원 乃至 2,000원을 支出한 例는 7.7%, 2,001원에서 5,000원까지의 費用을 支出한 例는 4.7%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樣相은 各 生活程度群에 屬하는 應答者의 支出金額에서도 類似한 傾向을 나타냈다(Table 67).

全 姙娠期를 通하여 産前診療를 爲하여 單 1원도 支出한 일이 없는 應答者의 比率은 51名의 婦人으로 이루어진 所謂 上流生活者의 17.6%를 차지하였으며 1,202名으로 形成되는 中流生活者群의 43.9%, 1,690名으로 이루어진 下流生活者群의 61.0%를 차지하고 있으며 生活程度에 따라 經費支出의 頻度가 顯隔히 다름을 證明한다. 但 上記 生活程度別 分類는 應答者 自身의 評價에 그 根據를 두고 있다.

調査員이 客觀的으로 評價하면 上流 및 中流에 더 많은 婦人을 配屬시키게 되는 反面 下流에 屬하는 婦人의 數가 적어지나 生活程度가 낮을수록 産前診療를 爲한 經費支出의 頻度가 低下하고 支出金額도 적어지는 樣相에 있어서는 應答者의 主觀에 依한 生活程度別로 應答者를 分類하였을 경우와 흡사하다(Table 68).

Table 67. Expense for Prenatal Check-up during Last Pregnancy by Socio-economic Position of Family Evaluated by Herself

Expense	Upper class	Middle class	Lower class	Total	Base
None	17.6	43.9	61.0	53.3	1,568
Less than 1,000 won	41.1	35.7	30.3	32.7	961
1,001—2,000 〃	17.7	11.1	4.9	7.7	225
2,001—5,000 〃	15.7	7.0	2.7	4.7	139
5,001—15,000 〃	3.9	1.5	0.8	1.1	34
15,001—30,000 〃	4.0	0.4	0.2	0.3	9
More than 30,000 〃	—	0.4	0.1	0.2	7
Total	100.0	100.0	100.0	100.0	2,943
Base	51	1,202	1,690	2,943	

Table 68. Expense for Prenatal Check-up during Last Pregnancy by Socio-economic Position of Family Appraised by Interviewer

Expense	Upper class	Middle class	Lower class	Total	Base
None	25.0	45.2	63.5	53.3	1,568
Less than 1,000 won	35.7	35.8	29.2	32.7	961
1,001— 2,000 〃	16.6	10.7	3.9	7.7	225
2,001— 5,000 〃	17.9	6.1	2.5	4.7	139
5,001—15,000 〃	2.4	1.6	0.6	1.1	34
15,001—30,000 〃	2.4	0.3	0.2	0.3	9
More than 30,000 〃	—	0.3	0.1	0.2	7
Total	100.0	100.0	100.0	100.0	2,943
Base	84	1,469	1,390	2,943	

G. 産前後 攝食

韓國 婦人이 姙娠期 및 産後期에 攝取하는 特殊 飮食 및 傳統的인 禁忌食品에 對하여 알려진 바 없으므로 本 硏究會에서는 다음의 質問을 通하여 이를 具體的으로 밝혀 보기로 했다.

「혹시 夫人께서는 姙娠한 동안 또는 産後에만 禁하시거나 멀리하시는 음식은 없으신지요? 무슨 飮食을 禁하시거나 멀리 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理由를 말씀해 주십시요」

本 質問에 대해서 18.2%에 該當하는 537名의 婦人이 姙娠中에 禁忌하는 食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産褥期에 꺼리는 食品이 있다고 報告한 婦人은 全 應答者의 2.4%에 해당하는 71名이었다 (Table 69).

다음 姙娠中 또는 産褥期에 特히 좋아 하거나 많이 攝取하는 飮食을 調査한 바 Table 70에 記載된 바와 같이 22.6%가 姙娠中 特히 攝取하는 食品을 報告하였고 이보다 훨씬 적은 2.0%에 해당하는 應答婦人이 産褥期에 特히 좋아하는 食品이 있음을 말하였다.

그러면 더 具體的으로 最終兒 出産直後 攝取한 特殊食品의 有無를 알아 본 結果 98.9%에 達하는 擧皆의 婦人이 特殊食餌를 取하였다고 報告하였으며(Table 71), 그 中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는 食品이 미역국으로 거의 100%를 이루었으며 다음은 油類(77.3%), 肉類(46.5%), 鷄卵(20.9%) 等의 順이었으며 少數이나마 15名의 婦人은 穀類로 된 죽을 主食으로 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Table 72).

Table 69. Experience of Food Tabooed during Pregnancy or in Puerperium

Food tabooed	During pregnancy		In puerperium	
	Number	Per cent	Number	Per cent
None	2,406	81.8	2,872	97.6
Yes	537	18.2	71	2.4
Total	2,943	100.0	2,943	100.0

Table 70. Experience of Food Preferred during Pregnancy or in Puerperium

Food preferred	During pregnancy		In puerperium	
	Number	Per cent	Number	Per cent
None	2,278	77.4	2,884	98.0
Yes	665	22.6	59	2.0
Total	2,943	100.0	2,943	100.0

Table 71. Diets after Giving Birth to Latest Child

Diet	Number	Per cent
Same diet as usual	31	1.1
Special diet	2,912	98.9
Total	2,943	100.0

Table 72. Kinds of Special Diet in Puerperium of Last-born Child

Kinds	Number*	Per cent
Gruels of cereals	15	0.5
Seaweed soup	2,906	99.8
Oil	2,251	77.3
Meat	1,353	46.5
Egg	609	20.9
Others	71	2.4

Note : * The base consists of 2,912, who were on special diet in puerperium.

이러한 特殊 食餌를 攝取한 期間은 産後 1日에서 1個月以上으로 그 範圍가 되었으나 産後 4日부터 3週日까지의 경우가 全體의 73.3%로서 大部分을 形成하고 있다(Table 73).

Table 73. Duration of Taking Special Diet

Duration	Number	Per cent
1 day	5	0.2
1—3 days	92	3.2
4—7 days	648	22.3
1—2 weeks	752	25.7
2—3 weeks	737	25.3
1 month	515	17.7
More than 1 month	163	5.6
Total	2,912	100.0

Ⅸ. 出生經驗 및 現存子女數

A. 出生數

Table 74는 調査對象 婦人의 出生數別 分布를 보여 주는 바 3回出生이 가장 많은 20.4%이고 다음은 2回出生 19.2%, 1回出生(18.0%), 4回出生(16.5%) 및 5回出生(9.6%) 等의 順序임을 알 수 있다. 出生 經驗이 없는 婦人은 全體婦人의 7.2%였으며 이는 姙娠 無經驗率 2.5%보다 4.7%가 높았음은 4.7%에 該當하는 婦人數에 있어서 姙娠은 하였으나 그 姙娠이 自然流産, 人工流産, 其他의 形態로 終結되어 出生經驗이 없음을 暗示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全體 婦人은 平均 2.9回의 出生을 經驗한 것으로 計算되었다.

總 3,171名의 調査對象 婦人中 127名(4% 該當)이 7回以上의 多産出生經驗을 갖었음이 報告된 것은 注目할 만 하다.

Table 74. Percentage of Woman by Number of Children Delivered Alive

Number of children	Number	Per cent
None	228	7.2
1	572	18.0
2	608	19.2
3	646	20.4
4	525	16.4
5	304	9.6
6	161	5.1
7	82	2.6
8	28	0.9
9	12	0.4
10	4	0.1
11	1	0.0
Total	3,171	100.0

Note: * Mean number of children delivered alive=2.9
** Total number of children delivered alive=9,266

平均出生回數 2.9를 年齡別로 計算하여 Table 75를 얻었는 바 19歲以下 年齡群의 0.6回에서 年齡의 增加에 따라 漸增하여 40歲以上群의 5.1에 達함을 볼 수 있으며 本 平均値를 1964年에 本 研究會에서 城東區 一圓을 對象으로 해서 實施한「刺戟投與前」實態調査에서 얻은 年齡別 出生回數의

平均値와 比較할 때 25歲以上 年齡群에서 平均値의 刮目할 만한 下落을 볼 수 있음은 高年齡層의 婦人의 出生回數가 顯著히 減少되어가는 傾向을 示唆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Table 75. Mean Number of Children Delivered Alive by Women of Various Ages

Age	Study in Sungdong Gu, 1968 (MCH survey)	Pre-action survey in Sungdong Gu, 1964
—19	0.6	0.3
20—24	0.9	0.9
25—29	1.7	2.0
30—34	3.1	3.3
35—39	4.0	4.7
40—44	5.1	5.4
Average	2.9	3.2
Base	3,171	3,204

B. 婦人의 現在年齡과 出生經驗

正常兒出生 未經驗率은 19歲以下群의 40.0%에서 年齡增加에 따라 漸減하여 45歲—49歲에서는 零이 되며 少數回(1—3回) 經驗率 亦是 年齡增加에 따라 거의 規則的으로 減少되었고 (19歲까지의 年齡群의 60.0%에서 45歲—49歲群의 16.4%에 이름) 4回—6回 出生經驗率 및 7回以上의 多出生經驗率은 反對로 年齡增加에 따라 大幅 增加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趨勢는 대체로 보아 앞서 考察한 年齡別 姙娠經驗率의 樣相과 一致한다(Table 76參照).

Table 76. Percentage of Women in Various Age Groups Experiencing Different Number of Live-births

Age	None	1—3 children	4—6 children	7 or more	Total	Base number
—19	40.0	60.0	—	—	100.0	5
20—24	29.4	70.0	0.6	—	100.0	296
25—29	10.9	84.3	4.7	0.1	100.0	892
30—34	3.1	59.3	36.9	0.7	100.0	933
35—39	1.5	35.0	58.2	5.3	100.0	685
40—44	0.5	20.2	56.4	22.9	100.0	347
45—49	—	16.4	58.5	24.9	100.0	12
50—	100.0	—	—	—	100.0	1
Total	7.2	57.5	31.3	4.0	100.0	3,171
Base number	228	1,826	990	127	3,171	

C. 婦人의 敎育程度와 出生經驗

平均 出生回數 2.9를 學歷別로 計算하여 Table 77에 記載된 數値를 얻었는 바 正規敎育을 받지 않은 婦人의 平均 出生回數는 4.1로서 婦人의 敎育程度의 上昇과 아울러 出生回數의 平均値는 漸減하여 專門·大學의 學歷을 갖인 婦人群에서 2.0임을 볼 수 있다. 敎育程度가 出生兒數에 미치는 影響이 큼은 이로써 立證이 되며 그 樣相은 1964年에 本硏究會에서 城東區 一圓을 對象으로 해서 實施

한「刺戟投與前」實態調査에서 얻은 敎育程度別 出生回數의 平均値와 比較할 때 無學群을 除外한 國民學校 以上 學歷所持者에 있어 一律的으로 0.1回의 減少를 본 것은 數年間에 걸친 이 地域에서의 家族計劃事業의 効果가 反映된 結果라 하기엔 微弱하며 더 追求할 필요성이 있다.

Table 77. Mean Number of Children Delivered Alive by Women of Various Educational Background

Education	Study in Sungdong Gu, 1968 (MCH survey)	Pre-action survey in Sungdong Gu, 1964
Illiterate or can read Korean letters	4.1	4.1
Primary school	3.1	3.2
Middle school	2.7	2.8
High school	2.4	2.5
University or college	2.0	2.1
Average	2.9	3.2
Base number	3,171	3,204

正常兒出生 未經驗率은 無學群(文盲者의 3.8%, 國文解讀者의 1.7%)에서 敎育程度의 上昇과 더부러 漸增하여 專門·大學學歷 所持者의 13.9%에 이르고 있다(Table 78參照). 文盲群으로 報告된 婦人中 31.7%가 1 乃至 3回의 出生을 經驗하였으며 이 百分率은 敎育程度의 上昇과 아울러 增加하여 專門·大學 學歷所持者의 72.2%에 達하였으며 4 乃至 6回 또는 7回以上의 出生을 經驗한 婦人의 比率은 學歷의 延長과 더부러 거의 規則的으로 減少됨을 볼 때 敎育이 出生經驗 回數에 逆的인 相關關係를 갖이고 있음을 如實히 露呈하고 있다.

Table 78. Percent of Women of Various Educational Background Having Experienced Different Number of Deliveries Alive

Education	None	1—3 children	4—6 children	7 or more	Total	Base number
Illiterate	3.8	31.7	45.5	19.0	100.0	79
Can read Korean letters	1.7	39.3	48.5	10.5	100.0	173
Primary school	5.8	53.6	36.0	4.6	100.0	1,535
Middle school	7.8	62.9	26.3	3.0	100.0	640
High school	10.5	67.0	21.7	0.8	100.0	593
University or college	13.9	72.2	13.9	—	100.0	151
Total	7.2	57.5	31.3	4.0	100.0	3,171
Base number	228	1,826	990	127	3,171	

D. 2次性比

本硏究에서 調査된 婦人 3,171名이 平均 2.9回의 出生經驗을 하였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이 平均은 性別로 男兒인 경우 平均 1.52回, 女兒인 경우 平均 1.40回로 나누어 計算되었다(Table 79 및 Table 80).

男兒의 경우나 女兒의 경우를 莫論하고 出生回數의 增加에 따라 이에 該當하는 婦人의 比率은 漸減하고 最多産記錄은 男兒, 女兒 共히 7回이며 이에 該當하는 婦人은 總數(3,171名)의 0.1%를 占하고 있다.

男兒出生 未經驗者, 即 아들이 없는 婦人이 全體의 21.7%에 達하는 反面 딸이 없는 婦人은 27.8 %를 차지하고 있어 相當한 差異가 있음은 注目할만 하다. 또한 男兒와 女兒의 경우 1回出生 經驗 婦人이 各 32.9%와 33.3%를 占하고 있음은 앞으로의 資料分析에 있어 記憶을 要하는 數値인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79. Number of Sons Delivered Alive*

Number of sons**	Number	Per cent
None	690	21.7
1	1,042	32.9
2	819	25.9
3	411	12.9
4	150	4.7
5	48	1.5
6	9	0.3
7	2	0.1
8	—	—
9	—	—
10	—	—
11	—	—
Total	3,171	100.0

Note: * Mean number of sons delivered alive=1.52
** Total number of sons delivered alive=4,821

Table 80. Number of Daughters Delivered Alive*

Number of daughter**	Number	Per cent
None	884	27.8
1	1,056	33.3
2	654	20.7
3	328	10.4
4	172	5.4
5	54	1.7
6	19	0.6
7	4	0.1
8	—	—
9	—	—
10	—	—
Total	3,171	100.0

Note: * Mean number of daughters delivered alive=1.40
** Total number of daughters delivered alive=4,448

E. 出生後 死亡한 子女數

本硏究의 對象이 된 3,171名의 婦人中 80.2%인 2,539名은 子女의 生後 死亡을 經驗치 않았으나 나머지 19.8%에 해당하는 632名의 應答者는 1名以上의 子女死亡을 經驗한 것을 Table 81의 資料에

依하여 알게 되었다.

死亡 子女의 總數는 890名이었으며 이를 男女別로보면 男兒 480名, 女兒 410名으로 풀이된다(Table 82 및 Table 83). 男兒의 死亡數가 女兒의 그것보다 많고 1名의 男兒가 死亡한 例의 比率이 1名의 女兒가 死亡한 例의 比率보다 높음을 特記해야 할 것이다.

Table 81. Number of Children Who Died after Birth*

Number of children**	Number	Per cent
None	2,539	80.2
1	452	14.2
2	123	3.9
3	42	1.3
4	10	0.3
5	4	0.1
More than 5	1	0.0
Total	3,171	100.0

Note: * Mean number of children who died after birth=0.27
** Total number children who died after birth=890

Table 82. Number of Sons Who Died after Birth*

Number of sons**	Number	Per cent
None	2,771	87.4
1	337	10.6
2	51	1.6
3	9	0.3
4	1	0.0
5	2	0.1
More than 5	—	—
Total	3,171	100.0

Note : * Mean number of sons who died after birth=0.15
** Total number of sons who died after birth=480

Table 83. Number of Daughters Who Died after Birth*

Number of daughters**	Number	Per cent
None	2,845	89.6
1	262	8.3
2	48	1.6
3	14	0.5
4	1	0.0
5	—	—
More than 5	1	0.0
Total	3,171	100.0

Note : * Mean number of daughters who died after birth=0.13
** Total number of daughters who died after birth=410

F. 現存 子女數

總 3,171名의 應答者가 出産한 子女中 現在 生存하고 있는 子女는 8,379名에 達하였으며(Table 84) 이中 男兒는 4,341名(Table 85) 女兒는 4,038名(Table 86)이었다. 每 應答婦人當 平均 2.64名의 子女를 가졌음이 計算되었으며 이는 男兒 1.36名 女兒 1.27名으로 算定되었다.

아직 1名의 男兒도 갖지 않은 婦人은 全體의 23.9%에 達하였으며 아직 1名의 女兒도 갖지 않은 婦人은 이보다 높은 29.5%였으며 아직 1名의 子女도 안갖인 婦人은 3,171名의 7.9%에 해당하는 250名이였다.

男兒의 경우는 1名의 男兒를 갖인 경우가 31.9%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2兒(26.9%), 3兒(10.6%) 等의 順序로 그 比率이 작아졌으며 가장 男兒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6兒의 경우로서 1例가 報告되었다.

女兒의 경우 1名의 女兒를 갖인 경우가 35.0%에 該當하여 1名의 男兒를 갖인 경우보다 比率이 높았으며 2名의 女兒를 갖인 경우는 21.1%로서 2名의 男兒를 갖인 경우보다 그 比率이 낮았다. 6名의 女兒를 갖인 경우가 6例 報告되었으며 本 調査에서 報告된 가장 많은 數의 女兒였다.

男兒와 女兒를 合하여 보면 3名의 子女를 갖인 경우가 全體 應答婦人의 22.8%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兒의 경우로서 20.1%였으며 1兒의 경우(19.8%), 4兒의 경우(17.1%)가 이에 뒤따름은 生兒出生에서 본 様相과 매우 흡사하였다.

本調査에서 가장 많이 報告된 子女數는 8名으로서 이에 6例가 該當한다(Table 84, Table 85, Table 86 参照)

保健社會部 家族計劃 調査評價班에 依한 1967年度의 全國調査에서 얻은 都市地域 現存子女數의 平均値[1] 3.11에 本 硏究地域의 平均値 2.64를 比較하여 1967年의 全國都市地域에 比해서 顯著히 낮은 것을 볼 때 本 硏究地域의 少數子女化의 傾向은 全國의 他地域을 앞지르고 있음을 示唆한다.

Table 84. Number of Living Children*

Number of children**	Number	Per cent
None	250	7.9
1	629	19.8
2	638	20.1
3	722	22.8
4	543	17.1
5	240	7.6
6	113	3.6
7	30	0.9
8	6	0.2
9	—	—
10	—	—
11	—	—
Total	3,171	100.0

Note: *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2.64
** Total number of living children=8,379

1)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Republic of Korea: The Findings of the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1967, p.176, December, 1968

Table 85. Number of Living Sons*

Number of sons**	Number	Per cent
None	758	23.9
1	1,108	34.9
2	840	26.5
3	336	10.6
4	106	3.3
5	23	0.8
6	1	—
7	—	—
8	—	—
9	—	—
10	—	—
11	—	—
Total	3,171	100.0

Note: * Mean number of living sons=1.36
** Total number of living sons=4,341

Table 86. Number of Living Daughters

Number of daughters**	Number	Per cent
None	935	29.5
1	1,109	35.0
2	668	21.1
3	287	9.0
4	134	4.2
5	32	1.0
6	6	0.2
7	—	—
8	—	—
9	—	—
10	—	—
11	—	—
Total	3,171	100.0

Note. * Mean number of living daughters=1.27
** Total number of living daughters=4,308

G. 總 出生兒數, 總 死亡子女數 및 總 現存子女數의 相關

區　分	男	女	計
現存子女數	4,341	4,038	8,379
死亡子女數	480	410	890
總出生兒數	4,821	4,448	9,269

以上 瞥見한 바 本 硏究의 對象이 된 3,171名의 旣婚婦人에서 얻은 出生兒數, 死亡子女數 및 現存子女數는 Table 74, 79, 80, 81, 82, 및 83, 84, 85,86에 依據 上記의 表와 같이 그 相互關係를 要約할 수 있다.

또한 上記 資料에 依하여 應答婦人의 男女別 現存子女數, 死亡子女數 및 總出生兒數의 平均値를 一括하면 다음과 같다.

區　分	男	女	計
現存子女數(平均)	1.36	1.27	2.64
死亡子女數(平均)	0.15	0.13	0.27
出生兒數(平均)	1.52	1.40	2.91

H. 最終出生兒中 死亡한 子女

總 3,171名의 응답자중 228名은 子女가 없었으며 1回이상 출생을 경험한 2,943名의 부인에 있어서 최종으로 출생한 자녀중 2,864名이 生存하고 79名이 사망하였음이 보고되었다(Table 87 참조).

Table 87. Survivals of Last-born Child

Survival	Number	Per cent
No child	228	7.2
Alive	2,864	90.3
Dead	79	2.5
Total	3,171	100.0

總 79名의 死亡件數中 거의 大部分인 54名이 家庭에서 死亡하였으며 病醫院에서 死亡한 最終出生兒도 21件에 達하였다(Table 88).

Table 88. Place of Death of Last-born Child

Place	Number	Per cent
Home	54	68.4
Hospital or clinic	21	26.6
Others	4	5.0
Total	79	100.0

總 2,943名의 婦人이 經驗한 2,943名의 最終 出生兒中 調査當時까지 79例의 死亡이 報告되었는 바 그中 66名이 生後 1年內에 死亡하였고 13名이 첫 生日以後에 死亡하였음이 밝혀졌다(Table 89參照).

그中 22名이 生後 1日 以內에 死亡하였고 30名이 生後 1週以內, 34名이 生後 1箇月以內에 死亡하여 生後 1箇月以內에 死亡한 例가 總嬰兒死亡 66例中 半數以上을 차지하였음이 밝혀졌다.

總 2,943名의 婦人應答者의 最終出生兒에서 報告된 79例의 死亡件數中 28例(35.4%)는 個人醫院의 醫師에 依해서 死亡이 診斷, 確認되었고 16例(20.3%)는 綜合病院의 醫師에 依해서 確認되었으니 全體 死亡件數의 半數以上인 55.7%가 「醫師」의 診斷과 確認을 받은 셈이 된다(Table 90).

그中 17例는 家族以外人이 確認한 바 없고 洞·統·班長 其他가 確認한 例가 22.8%에 達하였다.

Table 89. Age of Last-born Child at Death

Age at death	Number	Per cent	Cumulative number	Cumulative per cent
Within 1 day	22	27.9	22	27.9
Within 1 week	8	10.1	30	38.0
Within 1 month	4	5.1	34	43.1
1—3 months	11	13.9	45	57.0
4—6 〃	12	15.2	57	72.2
7—12 〃	9	11.4	66	83.6
After 1 year	13	16.4	79	100.0
Total	79	100.0		

Table 90. Person Confirming Death of Child

Person	Number	Per cent
No body	17	21.5
Doctor in private clinic	28	35.4
Doctor in general hospital	16	20.3
Herb doctor	—	—
Policeman	—	—
Chief of Dong, Tong or Ban	3	3.8
Others	15	19.0
Total	79	100.0

死亡兒의 申告에 關한 實態를 調査한 바 그 結果는 Table 91과 같다.

即 그 4分의 1인 20例만이 法定期間인 15日以內에 申告되었고 「아직 申告치 못했다」는 例가 68.4%에 達했다.

79名의 死亡兒中 58例(73.4%)는 埋葬되었고 21例(26.6%)는 火葬된 것으로 報告되었다(Table 92 參照).

Table 91. Time of Registration of Death

Time	Number	Per cent
Within 15 days after death	20	25.3
16 days—1 month 〃 〃	1	1.3
1—6 months 〃 〃	2	2.5
7—12 months 〃 〃	—	—
More than 1 year 〃 〃	2	2.5
Not registered yet	54	68.4
Total	79	100.0

Table 92. Disposal of the Death

Disposal	Number	Per cent
Buried	58	73.4
Cremated	21	26.6
Total	79	100.0

Table 93. Cause of Child Death

Cause	Number	Per cent
Prematurity	14	17.6
Infantile diarrhea or enteritis	12	15.2
Pneumonia	7	8.9
Convulsion	5	6.3
Meningitis	4	5.1
Jaundice	3	3.8
Small pox	2	2.5
Malnutrition	2	2.5
Tetanus	2	2.5
Measle	1	1.3
Bronchitis	1	1.3
Influenza	1	1.3
Erysipelas	1	1.3
Cardiac disease	1	1.3
Unknown or uncertain	23	29.1
Total	79	100.0

Table 94. Number of Children Living with Respondent

Number of children	Number	Per cent
None	247	7.8
1	626	19.7
2	647	20.4
3	718	22.7
4	537	16.9
5	244	7.7
6	116	3.7
7	30	0.9
8	6	0.2
9	—	—
10	—	—
11	—	—
Total	3,171	100.0

Mean=2.64

最終兒의 死亡原因을 表記하면 Table 93과 같다. 으뜸가는 死亡原因은 「未熟」이었으며 小兒泄瀉, 肺炎, 「간기」(痙攣)가 다음으로 높은 率을 보였다. 其他 死因으로는 腦膜炎, 黃疸, 天然痘, 榮養障害, 破傷風, 紅疫等이 報告되었다.

I. 應答者와 같이 生活하는 子女數

현재 應答者와 같이 한곳에서 生活하고 있는 자녀는 가구당 평균 2.64名이며 그중 아들은 평균 1.37名, 딸은 평균 1.27名이며 자녀수에 의한 應答者의 分布상황은 Table 94, 95, 96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95. Number of Sons Living with Respondent

Number of sons	Number	Per cent
None	746	23.5
1	1,111	35.1
2	845	26.6
3	335	10.6
4	111	3.5
5	23	0.7
6	—	—
7	—	—
8	—	—
9	—	—
10	—	—
11	—	—
Total	3,171	100.0

Mean=1.37

Table 96. Number of Daughters Living with Respondent

Number of daughters	Number	Per cent
None	929	29.3
1	1,120	35.4
2	664	20.9
3	287	9.0
4	130	4.1
5	35	1.1
6	6	0.2
7	—	—
8	—	—
9	—	—
10	—	—
11	—	—
Total	3,171	100.0

Mean=1.27

X. 嬰兒期 食品 및 榮養

A. 嬰兒期에 使用된 食品

本 調査地域內의 嬰兒가 攝取하는 食品으로는 嬰兒 前半 後半期를 莫論하고 母乳가 으뜸으로 調査된 2,943名의 嬰兒中 生後 6個月까지는 94%가, 7個月부터 12個月까지는 80%가 母乳를 먹고 있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嬰兒 前半 및 後半期를 通하여 다음으로 흔히 쓰인 食品은 加工乳로서 全體 調査對象嬰兒의 各 14% 및 13%를 차지하였다.

其他 牛乳, 미음, 죽, 밥等의 食品이 使用되고 있으나 嬰兒期 前半 및 後半을 通해서 미음과 죽, 밥 等이 若干 使用되고 있는 反面에 牛乳(Dairy mirk)의 使用이 極히 드문 事實은 比較的 價格이 低廉하고 榮養價 높은 牛乳의 普及이 未盡함을 反映하고 있어 住民의 購買力의 零細性, 各 家庭의 冷藏施設의 未備, 保健敎育의 必要性과 아울러 母乳榮養의 期間을 必要以上으로 延長시키는데 寄與하는 要因이 아닌가 한다(Table 97 參照).

Table 97. Food Taken in Infancy

Foodstuff	First 6 months after birth		Second 6 months after birth	
	Number	Per cent	Number	Per cent
Mother's milk	2,758	93.7	2,338	79.4
Artificial milk	425	14.4	374	12.7
Dairy milk	1	0.0	5	0.2
Thin rice-gruel	56	1.9	84	2.9
Rice-gruel	15	0.5	214	7.3
Rice	—	—	331	11.2
Others	17	0.6	24	0.8

Note. Total number of babies under study is 2,943

Table 98. "Main" Food Taken in Infancy by Last-born Child

Foodstuff	Former 6 months		Latter 6 months	
	Number	Per cent	Number	Per cent
Mother's milk	2,627	89.3	2,226	75.6
Artificial milk	252	8.6	224	7.6
Dairy milk	—	—	2	0.1
Thin rice-gruel	29	1.0	23	0.8
Rice-gruel	3	0.1	50	1.7
Rice	1	0.0	91	3.1
Others	7	0.2	5	0.2
No response or uncertain	24	0.8	322	10.9
Total	2,943	100.0	2,596	100.0

嬰兒期에 있어서의 主食으로 母乳가 가장 많이 쓰이고 다음이 加工乳이며 牛乳의 利用이 不振함은「主食」의 分布를 보여주는 Table 98로도 分明하다.

本 資料를 얻기 爲해서 本 硏究會가 派遣한 調査員은 그들의 質問을 다음과 같이 標準化했다.

「出生後 1年동안 끝의 아이에게 먹이신 음식中 가장 오랫동안(主로) 먹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B. 어머니의 敎育程度와 嬰兒食品

嬰児가 攝取하는「主食」이 어머니의 敎育程度의 影響을 받으리라는 推測은 Table 99가 提示하는 資料로써 立證된다. 即 嬰児 前半期에 있어서 거의 大部分이라고 할 수 있는 89.3%가 母乳에 依存하고 8.6%에 該當하는 252名의 嬰児가 人工乳를 攝取한 것은 前述한 바와 같거니와 (Table 98) 母乳를 攝取한 比率은 어머니가 文盲일 경우의 89.5%, 그리고 어머니가 國文解得程度의 學歷을 갖었을 때의 89.9%에서 부터 漸次로 減少되어 大學·專門敎育程度의 學歷을 갖었을 경우의 74.0%에 이르고 있음은 敎育程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母乳로 哺育하는 頻度가 줄어듦을 示唆한다. 反對로 人工乳를 供給하는 경우를 보면 文盲인 어머니의 경우의 3.9%에서 敎育程度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그 比率이 增加하여 高等學校群의 14.1%를 거쳐 大學·專門敎育의 學歷所持者인 경우의 24.4%까지 이르고 있다.

上記 傾向은 離乳(젖떼기)에 對한 母性의 理解와 知識 및 態度가 그들의 敎育的인 背景의 差異로 因하여 영향을 받고 있음도 아울러 示唆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Table 99. "Main" Food Taken in Early Infancy by Last-born Child, by Their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Education	Mother's milk	Artificial milk	Dairy milk	Thin rice-gruel	Ricegruel	Rice	Others	No response	Total	Base
Illiterate	89.5	3.9	—	2.7	—	—	—	3.9	100.0	76
Can read Korean	89.9	7.1	—	3.0	—	—	—	—	100.0	168
Primary school	92.7	5.5	—	0.8	0.1	—	0.1	0.8	100.0	1,448
Middle school	89.7	8.4	—	1.0	—	—	0.2	0.7	100.0	586
High school	82.9	14.1	—	0.6	0.4	0.2	0.7	1.1	100.0	534
University or college	74.0	24.4	—	0.8	—	—	0.8	—	100.0	131
Total	89.3	8.6	—	1.0	0.1	0.1	0.2	0.8	100.0	2,943
Base	2,627	252	—	29	3	1	7	24	2,943	

本調査의 對象이 된 總計 2,943名의 嬰児의 大部分인 2,627名이 嬰児期 前半에 있어서 母乳에 依存하는 給食을 받아온 것은 前表 資料에서 分明하거니와 本件 質問에 應答이 없었던 24例를 除外한 나머지 292例에서 母乳를 使用치 못했던 理由를 밝혀 보면 Table 100에 記載된 바와 같이 그中 76%에서 母乳分泌不充分이 報告되어 首位를 차지하고「母體의 健康을 爲해서」와「어머니의 就業때문에」가 各 6%와 4%로서 다음으로 重要한 理由로서 提示되고 있다. 그 밖에 僅少하나마 8例에 있어 乳房의 疾病이 報告되었고 6例의 母性은 母乳以外의 食品이 그 榮養價에 있어서 母乳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傾向은 嬰児 後半期에 供給된「主食」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Table 101에 記載된 資料는 母親의 敎育程度에 따라서 母乳 및 人工乳의 給食率이 變化하는 樣相을 보여준다.

嬰児 前半 및 後半期를 通하여 使用된 食品으로는 母乳와 人工乳 以外에 미음, 쌀죽, 쌀밥 等이 報告되었다.

Table 100. Reasons for Not Giving Mother's Milk

Reason	Number	Per cent
Lack of mother's milk	222	76.0
Disease on the breasts	8	2.7
Due to jobs	12	4.1
For mother's health	18	6.2
Didn't want to breast-feed	1	0.3
Think that others are better than mother's milk	6	2.1
Others	25	8.6
Total	292	100.0

Table 101. "Main" Food Taken in Latter Infancy by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Education	Mother's milk	Artificial milk	Dairy milk	Thin rice-gruel	Rice-gruel	Rice	Others	Total	Base
Illiterate	88.4	7.3	—	1.4	—	2.9	—	100.0	69
Can read Korean	85.5	7.2	—	2.0	2.6	2.0	0.7	100.0	153
Primary school	90.0	5.6	0.1	0.8	1.5	2.0	—	100.0	1,302
Middle school	85.6	7.6	0.2	1.1	1.5	3.8	0.2	100.0	523
High school	74.4	15.0	—	0.2	2.8	7.2	0.4	100.0	466
University or college	62.0	23.1	—	1.9	5.6	6.5	0.9	100.0	108
Total	84.9	8.5	0.1	0.9	1.9	3.5	0.2	100.0	2,621*
Base	2,226	224	2	23	50	91	5	2,621*	

Note: * 2,621=2,943 (Women with experience of at least one live birth)—322 (Who gave no response that can enter our data).

C. 離乳의 時期

서울特別市 城東區 居住婦人의 最終出生児의 離乳時期를 測定코자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및 醫科大學의 都市人口硏究會에서 派遣된 調査員은「離乳」란 用語의 難解性을 염려하여 標準化된 質問書의 語句를 따라 調査對象이 된 母性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어머니 젖을 끊으신 것은 언제입니까? 우유나 미음을 주로 먹이신 경우에는 다른 음식(밥등)으로 바꾸신 것은 언제 입니까?」

Table 102. Time of Weaning

Time	Number	Per cent
Up to 6th month	56	2.8
7th—9th 〃	53	2.7
10th—12th 〃	142	7.1
After 1 year of age	1,747	87.4
Total	1,998	100.0

調査對象 嬰児中 離乳가 끝난 1,998例에서 大多數인 87%가 1年後에야 完全히 母乳를 떼었거나 「밥」等 飮食으로 本格的으로 轉換하였다고 報告되었으며 6箇月까지와 7個月에서 부터 9箇月까지의 各 3%程度임을 알게 되었다(Table 102 參照).

D. 婦人의 教育別 離乳時期에 關한 意見

韓國에 特有한 生活環境下에서 또한 大多數의 韓國婦人의 經濟力과 育兒技術에 立脚한 適切한 離乳時期에 對하여 아무도 科學的인 資料에 根據를 둔 勸告를 한 바 없거니와 離乳時期를 標準化할 수 있는 資料求得의 첫 試圖로서 本硏究會에서는 城東區 金北洞 一圓의 住民에 對하여 離乳時期에 對한 意見을 聽取키로 하였던 바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하기로 하였다.

「끝의 아이의 경우와는 關係없이 夫人의 意見으로는 離乳食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게 좋겠읍니까?」

이 質問에 對하여 「生後 6箇月以前」이라고 대답한 婦人은 2,943名中 5.3%였으며 「7 乃至 9箇月」에 젖을 떼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婦人은 8.4%였고 「10 乃至 12箇月」이 適切하다고 생각하는 婦人은 16.2%였다. 돐이 지나서 即 1年後에 젖을 떼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婦人의 數는 意外로 많아서 70.1%에 達하였는데 大多數의 婦人 그것도 文化的으로 經濟的으로 또한 生活技術面에서 가장 앞서 있어야 할 우리나라 大都市 居住 婦人이 母乳의 榮養價가 嬰兒의 適切한 發育을 維持할 수 없게 된 지 이미 오래인 生後 12箇月 以後까지 母乳를 主食으로 하여 嬰兒를 養育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事實은 우리나라 母子保健上 또한 保健教育上 적지 않은 問題點을 提示하는 것으로 생각된다(Table 103 參照).

여기서 特記할 것은 本 論文에서 다룬 母子保健의 水準測定을 爲한 다른 여러가지 指標 (Indicato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離乳食供給의 時期에 對한 意見에 있어서도 婦人의 教育程度가 至大한 役割을 한다는 事實이다.

即 上記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6箇月以前」, 「7 乃至 9箇月」 等 嬰兒期 前半 또는 後半이라도 比較的 이른 時期에 離乳食을 供給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하는 婦人의 比率은 教育水準의 上昇과 아울러 例外없이 增加하나 「첫돐以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婦人의 比率은 이와 反對로 教育水準과 逆的인 相關을 보이고 있다. 所謂 「文盲」群의 90.9%가 1年以後 離乳를 主張하고 있는데 이 率은 教育程度가 높은 群에서는 漸次로 떨어져서 中學校群의 61.2%, 高等學校群의 59.9%를 거쳐 專門·大學學歷群의 47.3%에 이르고 있는데, 教育程度의 上昇과 아울러 如斯比率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大學이나 專門教育을 받았다는 婦人의 거의 半數에 達하는 應答者가 「1年以後」까지 젖을 먹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一驚을 禁할 수가 없다.

Table 103. Ideal Time of Weaning by Women's Education

Education	Under 6th month of age	7～9th month of age	10～12th month of age	After first birthday	Total	Base
Illiterate	1.3	—	7.8	90.9	100.0	76
Can read Korean	1.8	3.6	13.1	81.5	100.0	168
Primary school	2.7	4.9	15.1	77.3	100.0	1,448
Middle school	5.4	11.3	22.1	61.2	100.0	586
High school	9.4	15.7	15.0	59.9	100.0	534
University or college	22.2	15.2	15.3	47.3	100.0	131
Total	5.3	8.4	16.2	70.1	100.0	2,943

E. 嬰兒期에 使用된 特殊食品

本 硏究會의 調査員은 이어 아래와 같은 質問을 한 다음 應答內容을 미리 準備된 「符號化된」調査票에 記入하였다.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먹이신 음식이나 약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 質問에 대하여 出生의 經驗이 있는 2,943名의 婦人中 最終出生兒의 경우 生後 6個月以內에 아무런 特別한 飮食을 먹인 일이 없다고 報告한 婦人이 94.2%에 該當하는 2,774名에 달하였음은 注目할 만 하며 生後 7個月以後에는 이 率이 훨씬 줄어서 72.7%로 計算되었다. 生後 6個月까지 또는 7個月 以後 12個月까지의 期間을 통하여 가장 흔히 使用되었다고 報告된 特殊飮食은 달걀(各 2.2% 및 19.4%), 쌀죽(1.8% 및 5.3%), 빵(1.6% 및 15.9%), 羊乳(0.5% 및 1.7%)였다(Table 104 參照).

全般的으로 補助食品 使用率이 貧弱함은 嬰兒期 榮養 및 離乳方法에 關聯된 많은 問題를 提起함은 勿論이려니와 嬰兒期 後半에 가서 多少나마 各種 補助食品의 利用率이 높아짐은 기억해야 할 事項이라고 생각된다.

Table 104. Special Food for Infancy

Special food	Former 6 months		Latter 6 months	
	Number	Per cent	Number	Per cent
None	2,274	94.2	1,960	72.7
Bread	48	1.6	428	15.9
Eggs	66	2.2	523	19.4
Goat milk	15	0.5	46	1.7
Honey	5	0.2	21	0.8
Gruel of glutinous rice	52	1.8	143	5.3
Others	19	0.6	79	2.9
Total	2,979	101.1*	3,200	118.7**

Note: * Exceeds 100 per cent, for not a few respondents gave more than one special food. Number in the base group is 2,943 who have experienced at least one live birth.

** Exceeds 100 per cent for the same reason as above. Number in the base group is 2,596 (2,943 minus 347 whose last born babies are currently in the ages of 6 months or younger.)

Table 105. Medicine Used during Infancy

Medicine	Former 6 months		Latter 6 months	
	Number	Per cent	Number	Per cent
None	2,632	89.4	1,939	71.9
Nutirents (Wongiso or Ebiose etc.)	231	7.8	574	21.3
Vitamines	111	3.8	280	10.4
Hematics	9	0.3	40	1.5
Others	5	0.2	15	0.6
Total	2,988	101.5*	2,848	105.7**

Note: * Exceeds 100 per cent as not a few respondents gave more than one medicine. Number in the base group is 2,943 who have experienced at least one live birth,

** Exceeds 100 per cent for the same reason as above. Base is 2,596 (2,943 minus 347 whose last born babies are in the age of 6 months or younger).

嬰兒期에 使用된 醫藥品으로는 主로 「원기소」나 「에비오제」(嬰兒期 前半에는 7.8%, 後半에는 21.3%), 각종 비타민(3.8% 및 10.4%), 鐵劑(0.3% 및 1.5%)等이 報告되었다(Table 105).

Table 105의 各 百分率의 合計가 100%를 超過함은 應答婦人들中 相當數가 2種以上의 嬰兒期 補助食品 및 主로 使用된 醫藥品을 報告하였기 때문이며 嬰兒期前半에 해당하는 補助食品 및 醫藥品 質疑에 應한 婦人은 生兒出産의 經驗이 있는 2,943名이며 嬰兒期 後半에 해당하는 補助食品 및 醫藥品 質疑에 應한 婦人은 生兒出産의 經驗이 있는 2.943名의 婦人에서 最終兒의 月齡이 6個月 未滿인 例數 347을 除外한 2,596名이었음을 附記한다.

XI. 豫防接種에 關한 知識과 態度

A. 各種 豫防接種에 關한 知識水準

保健社會部가 그의 保健醫療網을 通하여 全國的으로 實施하고 있는 各種 豫防接種에 對해서 本硏究의 對象이 되는 城東區 金北洞 一國에 居住하는 婦人들이 가지고 있는 知識의 範圍와 深度를 測定키 爲하여 몇가지 設問을 하였던 바 98.2%에 達하는 大部分의 婦人이 豫防接種의 必要性을 認定함을 表明하였으며 極少數이기는 하나 4名의 婦人은 豫防接種이 必要없다고 대답하였으며 1.7%에 該當하는 32名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은 注目을 끌만한 일이라 하겠다(Table 106 參照).

豫防接種이 必要없다고 생각하는 4名의 婦人에 對해서 그 理由를 알아 보았으나 3名은 理由欄에 記載가 없었고 1名의 婦人의 경우 「둘째 딸이 D.P.T. 接種後 3日만에 死亡하였기 때문에 豫防接種은 절대 반대다」라고 陳述한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106. Attitude toward Necessity of Immunizations for Children

Division	Number	Per cent
Necessary	3,115	98.2
Unnecessary	4	0.1
Uncertain	32	1.7
Total	3,171	100.0

Table 107. Recognition of Places for Immunizations

Division	Number	Per cent
Know	2,452	76.5
Don't know	746	23.5
Total	3,171	100.0

豫防接種의 必要性에 對하여는 大部分의 婦人이 이를 認定하면서도 23.5%에 達하는 746名의 婦人이 어디서 豫防接種을 받아야 할 지 모르고 있으며(Table 107), 37.5%에 該當하는 1,189名의 婦人이 D.P.T.(디프테리아·百日咳·破傷風)注射의 이름이나 使用目的을 모르고 있다는 點은 (Table 108) 이와 同一 百分率을 占하는 婦人(37.5%)이 B.C.G. 接種의 使用目的을 알지 못하고 있는 (Table 109) 事實과 더부러 各種 豫防接種 實施에 隨伴해야 할 保健教育 乃至 公報事業上의 問題點을 提示하는 것으로 看做할 수 있을 것같다.

Table 108. Awareness of the Purpose of D.P.T.

Division	Number	Per cent
Know	1,982	62.5
Don't know	1,189	37.5
Total	3,171	100.0

Table 109. Awareness of the Purpose of B.C.G.

Division	Number	Per cent
Know	1,981	62.5
Don't know	1,190	37.5
Total	3,171	100.0

이에 反해서 大部分의 婦人이(94.6%) 天然痘 豫防接種의 目的을 理解하고 있었으며 (Table 110) 또한 높은 比率의 婦人이 (91.1%) 所謂 小兒痲痺 豫防接種의 使用目的을 알고 있었음은 (Table 111) 오히려 鼓舞的인 現象이 아닌가 한다.

Table 110. Awareness of the Purpose of Smallpox Vaccine

Division	Number	Per cent
Know	2,999	94.6
Don't know	172	5.4
Total	3,171	100.0

Table 111. Awareness of the Purpose of Polio. Vaccine

Division	Number	Per cent
Know	2,888	91.1
Don't know	283	8.9
Total	3,171	100.0

B. 婦人의 教育程度와 豫防接種知識

D.P.T. 豫防接種의 目的에 對하여 알고 있다고 報告한 應答婦人의 比率도 이들의 教育程度가 높아짐에 따라 劇的으로 增加되고 있음이 Table 112에 依해서 證明된다. 즉「알고 있다」는 率은 文盲群의 27.8%에서 넓은 幅을 갖이고 規則的으로 上昇하여 專門·大學의 學歷을 갖인 婦人의 87.4%에 이르고 있다.

Table 112. Awareness of the Purpose of D.P.T. by Respondent's Education

Education	Know	Don't know	Total
Illiterate	22 (27.8)	57 (72.2)	79 (100.0)
Can read Korean letters	68 (39.3)	105 (60.7)	173 (100.0)
Primary school	843 (54.9)	692 (45.1)	1,535 (100.0)
Middle school	435 (68.0)	205 (32.0)	640 (100.0)
High school	482 (81.3)	111 (18.7)	593 (100.0)
University or college	132 (87.4)	19 (12.6)	151 (100.0)
Total	1,982 (62.5)	1,189 (37.5)	3,171 (100.0)

이와 비슷한 現象은 所謂「小兒痲痺」豫防接種, 天然痘豫防接種, B.C.G. 豫防接種의 使用目的을「알고 있다」는 應答者의 比率을 學歷群別로 比較해 볼 때에도 共通的으로 나타났다(Table 113, 114, 115 參照).

Table 113. Awareness of the Purpose of Poilio. Vaccine by Respondent's Education

Education	Know	Don't know	Total
Illiterate	54 (68.4)	25 (31.6)	79 (100.0)
Can read Korean letters	139 (80.3)	34 (19.7)	173 (100.0)
Primary school	1,353 (88.1)	182 (11.9)	1,535 (100.0)
Middle school	614 (95.9)	26 (4.1)	640 (100.0)
High school	581 (98.0)	12 (2.0)	593 (100.0)
University or college	147 (97.4)	4 (2.6)	151 (100.0)
Total	2,888 (91.1)	283 (8.9)	3,171 (100.0)

Table 114. Awareness of the Purpose of Smallpox Vaccine by Respondent's Education

Education	Know	Don't know	Total
Illiterate	66 (83.5)	13 (16.5)	79 (100.0)
Can read Korean letters	156 (90.2)	17 (9.8)	173 (100.0)
Primary school	1,429 (93.1)	106 (6.9)	1,535 (100.0)

Middle school	619 (96.7)	21 (3.3)	640 (100.0)
High school	583 (98.3)	10 (1.7)	593 (100.0)
University or college	146 (96.7)	5 (3.3)	151 (100.0)
Total	2,999 (94.6)	172 (5.4)	3,171 (100.0)

Table 115. Awareness of the Purpose of B.C.G. by Respondent's Education

Education	Know	Don't know	Total
Illiterate	21 (26.5)	58 (73.4)	79 (100.0)
Can read Korean letters	70 (40.5)	103 (59.5)	173 (100.0)
Primary school	823 (53.6)	712 (46.4)	1,535 (100.0)
Middle school	435 (68.0)	205 (32.0)	640 (100.0)
High school	494 (83.3)	99 (16.7)	593 (100.0)
University or college	138 (91.4)	13 (8.6)	151 (100.0)
Total	1,981 (62.5)	1,190 (37.5)	3,171 (100.0)

C. 豫防接種回數와 充實度

生兒出產의 經驗이 있는 2,943名의 婦人中 最終兒가 生後 1年未滿에 死亡한 66例를 除外한 2,877名의 婦人을 對象으로 그들의 最終兒가 1年以內에 豫防接種을 받은 率을 計算하여 Table 116을 얻었다.

2,877名의 婦人中 22.5%에 해당하는 647名의 경우 아무런 豫防接種도 받은 일이 없다고 報告한 것은 놀랄만 한 事實이며 防疫 및 嬰幼兒保健, 母性의 保健敎育上의 많은 問題를 提示하는 것으로 본다.

天然痘의 接種率이 가장 높고(59.6%) 다음 所謂 小兒麻痺 豫防接種率이 이를 따르고(54.5%) D.P.T. 接種率도 43.7%에 達하고 있으나 1年以內의 未接種率이 높음은 政府의 母子保健對策의 盲點을 如實이 暴露하는 것으로 看做치 않을 수 없다.

Table 116. Proportions of Children Immunized during Infancy

Classfication	Total	Number	Per cent
D.P.T.	2,877	1,257	43.7
Smallpox	2,877	1,715	59,6
Polio. vaccine	2,887	1,567	54.5
B.C.G.	2,877	885	30.8
Vaccinated but not remembered	2,877	196	6.8
Never vaccinated	2,877	647	22.5

Note: 1. Aggregation of percentage exceeds 100% because of the respondents having had vaccinations of two or more kinds.
2. Number in the base group 2,877=2,943 (Women with babies born alive)-66(Women with babies who died within 12 months after birth)

生後 12個月以內에 D.P.T. 豫防接種을 받았다고 報告된 1,257例에 있어서 그들의 接種回數別 分布를 보면 3回接種이 가장 많은 72.9%를 차지하고 다음이 1回接種으로 16.1%였다. 接種을 2回에 결쳐서 받은 例數는 9.5%에 不過하며 1回接種으로 그친 例數가 相當한 比率을 形成한 反面에 2回接種에서 그친 例數가 이보다 훨씬 적은 點을 參酌하면 2回까지 接種을 받은 嬰兒는 大部分이 3回까지 接種을 받게 되는 것을 示唆하며 D.P.T. 豫防接種 實施와 併行하여 보다 徹底한 保健敎育의 必要가 있음을 알게 된다(Table 117).

接種場所로는 病醫院이 가장 흔히 報告되었으며(61.0%) 다음이 保健所로서 37.6%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18 參照).

Table 117. Frequency of D.P.T. Immunization during Infancy

Frequency	Number	Per cent
1 time	203	16.1
2 times	119	9.5
3 times	917	72.9
Uncertain	18	1.5
Total	1,257	100.0

Table 118. Place of D.P.T. Immunization

Place	Number	Per cent
Clinic or hospital	767	61.0
Health center	473	37.6
Others	17	1.4
Uncertain	—	—
Total	1,257	100.0

最終出生兒의 生後 12個月以內에 天然痘 豫防接種을 맞추었다고 報告한 1,715例의 婦人에 있어서 이들의 接種回數別 分布를 보면 1回接種이 96.9%로서 거의 大部分이었고 2回以上 接種을 받았다는 率도 3%나 되었다(Table 119).

天然痘豫防接種 場所로는 病醫院(49.9%)과 保健所(49.6%)가 各其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20 參照).

Table 119. Frequency of Smallpox Vaccination during Infancy

Frequency	Number	Per cent
1 time	1,662	96.9
2 times	45	2.7
3 times	4	0.2
Uncertain	4	0.2
Total	1,715	100.0

Table 120. Place of Smallpox Vaccination

Place	Number	Per cent
Clinic or hospital	847	49.4
Health center	850	49.6
Others	17	1.0
Uncertain	1	0.0
Total	1,715	100.0

多發性 灰白髓炎(俗稱 小兒痲痺) 豫防接種을 最終兒의 生後 1年以內에 마쳤다고 대답한 1,567例의 婦人에 있어서 그의 回數別 分布를 計算하여 Table 121에 記載된 百分率을 얻었다.

2回 接種으로 그친 例數(16.7%)는 1回 接種으로 그친 例數(17.6%)보다 적고 3回 接種이 越等히 많은 60.2%를 차지함은 그 樣相이 大體로 D.P.T. 豫防接種의 경우와 類似함이 興味롭게 생각된다.

多發性 灰白髓炎 豫防接種을 받은 場所로는 病醫院의 경우(56.4%)가 保健所의 경우(41.9%)보다 훨씬 높았으며 如斯 各種 豫防接種을 有料 或은 無料로 받았는지는 本調査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다(Table 122).

Table 121. Frequency of Polio. Vaccination during Infancy

Frequency	Number	Per cent
1 time	276	17.6
2 times	262	16.7
3 times	943	60.2
Uncertain	86	5.5
Total	1,567	100.0

Table 122. Place of Polio. Vaccination

Place	Number	Per cent
Clinic or hospital	884	56.4
Health center	656	41.9
Others	27	1.7
Uncertain	—	—
Total	1,567	100.0

本調査에 應答한 3,171名의 婦人中 生兒出産의 經驗이 있는 2,943名의 婦人에서 最終兒가 生後 12個月以內에 死亡한 66例의 婦人을 除外한 2,877例中 30.8%에 해당하는 885名만이 最終出生兒에 B.C.G. 接種을 마쳤음은 前揭 Table 116. 「嬰兒期에 豫防接種을 받은 比率」에 記載된 바와 같다.

換言하면 69.2%에 해당하는 例數에 있어 B.C.G. 接種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事實은 높은 結核發病率과 아울러 앞으로 있을 包括的인 保健對策樹立에 있어 기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B.C.G. 接種은 大部分에 있어 1回에 그치고 있으며(96.5%) 2回 乃至 3回接種도 3.1%에 達하나 그 事緣은 밝혀지지 않았다(Table 123).

接種場所로는 病醫院이 大多數를 占하여 51.7%에 達하였고 保健所도 적지 않은 役割을(44.4%)담당하고 있음이 밝혀졌다(Table 124).

Table 123. Frequency of B.C.G. Vaccination during Infancy

Frequency	Number	Per cent
1 time	854	96.5
2 times	15	1.7
3 times	12	1.4
Uncertain	4	0.4
Total	885	100.0

Table 124. Place of B.C.G. Vaccination

Place	Number	Per cent
Clinic or hospital	457	51.7
Health center	393	44.4
Others	34	3.8
Uncertain	1	0.1
Total	885	100.0

XII. 家族計劃 및 出生申告

A. 家族計劃 實踐率

現在 男便과 同居하고 있는 婦人應答者 總 3,171名中 避姙을 實踐하고 있는 婦人은 27.8%에 達하고 있어 1968年 12月에 保健社會部가 發表한,1967年 4月 現在 全國 「都市地域」의 現在 實踐率 26.0%를 上廻한다(Table 125).

「過去에만 避姙法을 使用한 일이 있다」는 대답을 11.2%의 婦人應答者에서 얻었는 바 1967年 4月 現在 全國의 都市地域 居住婦人의 過去實踐率 9.6%보다도 높았다.

Table 125. Practice of Contraception

Practice	Number	Per cent
Never practiced	1,937	61.0
Currently practicing	880	27.8
Practiced in past only	354	11.2
Total	3,171	100.0

現在 避姙法을 使用하고 있다고 報告한 880名의 婦人에 대해서 그 方法을 調査한 결과 먹는 避姙藥이 29.8%를 占하여 가장 높은 比率을 構成하였고 다음이 子宮內裝置로서 25.0%, 「콘돔」도 17.8%에 해당하는 157名의 婦人에 의하여 報告되었다. 또 其他 避姙方法으로는 78例의 精管手術採擇이 報告되었으며(8.9%), 月經週期法과 基礎體溫法(合하여 7.3%), 卵管結紮(4.3%), 膣外射精法(4.3

%) 등도 적지 않은 比率을 차지함을 알게 되었다.

發泡性 膣錠과 「젤리」 使用件數는 微微하여 各 0.9%와 0.3%에 해당함을 볼 수 있다(Table 126 參照).

Table 126. Methods of Contraception Currently Practicing

Methods	Number	Per cent
Oral pill	262	29.8
Loop	220	25.0
Condom	157	17.8
Vasectomy	78	8.9
Rhythm or basal body temperature	63	7.3
Tubal ligation	38	4.3
Extravaginal ejaculation	38	4.3
Foam tablet	9	0.9
Jelly	3	0.3
Others	12	1.4
Total	880	100.0

B. 出生申告의 履行

出生經驗이 있다고 報告한 2,943名의 婦人의 最終出生兒의 出生을 申告한 期間에 따른 分布는 Table 127에 表示된 바와 같다.

法定期日 15日以內에 出生을 申告한 率은 가장 높았으나 27.5%에 不過했고 1個月以內에 申告한 例는 40.6%였다. 生後 1年以內에 出生을 申告한 例는 67.7%였다. 生後 1年이 넘어서 出生申告를 한 例도 11.7%에 達함이 밝혀졌다. 한편 아직도 出生申告를 않은 경우가 20.2%인 596例나 됨을 알 수 있다.

Table 127. Time of Registration of Birth

Time	Number	Per cent
Not yet	596	20.2
Within 15 days after birth	810	27.5
16–30 days 〃	386	13.1
1– 3 months 〃	393	13.0
4– 6 〃 〃	255	8.7
7–12 〃 〃	158	5.4
After the first birthday	325	11.0
At attending primary school	20	0.7
Total	2,943	100.0

各 敎育程度群에 속하는 婦人(總計 2,943名)의 最終兒의 出生을 申告한 期間別로 計算한 百分率을 學歷別로 比較하여 Table 128을 얻었다.

이 表에 依하면 比較的 短時日內에 出生을 申告한 比率이 어머니의 敎育程度의 上昇과 아울러 規則的으로 增加하고 比較的 長時日이 經過된 後 出生을 申告한 率은 이와 反對로 어머니의 學歷

이 높을수록 減少됨을 알 수 있다. 即 法定期日인 15日以內에 申告한 어머니의 比率은 文盲者인 경우 23.7%이나 國民學校群에서는 24.4%, 中學校群에서는 28.5%, 高等學校群에서는 36.3%, 專門·大學群에서는 32.8%로 計算되었고 生後 1年이 지나서 申告한 比率은 國文解得群의 16.1%에서 漸減하여 專門·大學群의 6.1%에 미침을 본다.

Table 128. Registration of Last-born Child's Birth by Mother's Education

Education	Not registered yet	Within 15 days after birth	16–30 days after birth	1–3 months after birth	4–6 months after birth	7–12 months after birth	After first birthday	At attending primary school	Total	Base
Illiterate	23.7	23.7	6.6	14.4	9.2	5.3	13.2	3.9	100.0	76
Can read Korean	20.2	20.8	10.1	17.9	8.3	6.0	16.1	0.6	100.0	168
Primary school	19.7	24.4	12.3	13.4	9.8	7.0	12.8	0.6	100.0	1,448
Middle school	21.7	28.5	15.2	12.5	7.2	4.3	10.1	0.5	100.0	586
High school	20.2	36.3	14.0	12.4	7.5	2.6	6.6	0.4	100.0	534
University or college	18.3	32.8	17.6	14.5	7.6	3.1	6.1	—	100.0	131
Total	20.3	27.5	13.1	13.4	8.7	5.4	11.0	0.6	100.0	2,943
Base	596	810	386	393	255	158	325	20	2,943	

XIII. 調査對象者의 諸特性

A. 年 齢

1. 婦人의 年齢分布

本調査의 對象이 된 全有配偶婦人의 5歲階層別年齢의 構成比率을 보면 Table 129에서와 같이 30~34歲群 婦人의 構成比率이 29.4%로서 가장 높고 다음은 25~29歲群이 28.1%이며 19歲以下는 0.2%이고 45歲以上도 0.5%이었다.

Table 129. Comparison of Age Distribution of Respondents

Age	M.C.H. survey* Sungdong Gu, 1968	1967 N.K.A.P. survey**		
		Total	Urban	Rural
Under 19	0.2	1.1	0.8	1.3
20—24	9.3	11.7	8.9	13.2
25—29	28.1	26.1	26.1	26.0
30—34	29.4	24.0	26.5	22.8
35—39	21.6	21.0	23.1	19.9
40—44	10.9	16.1	14.6	16.8
45—	0.5	—	—	—
Total	100.0	100.0	100.0	100.0
(Respondents)	(3,171)	(3,624)	(1,207)	(2,417)

Mote : * Maternal and Child Health Survey in Sungdong Gu, 1968
** The National K.A.P. Survey on Family Planning, 1967

이는 1967年度 全國家族計劃實態調査에서 報告된 「都市地域」婦人들의 年齡構成比率과 比較하여 보면 本 調査對象이 된 婦人中 20歲에서 34歲에 이르는 婦人의 比率이 全國都市의 그것 보다 全般的으로 높은 반면에 全國의 都市婦人에 있어서는 35歲 以上群의 比率이 城東區 居住婦人의 同年齡群 比率보다 높아 城東區에 居住하는 부인의 年齡이 全國都市地域의 婦人年齡보다 낮음을 示唆하며 이로 미루어 大都市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婦人은 대체로 낮은 年齡層에 集中될을 推測할 수 있다.

2. 男便의 年齡分布

婦人의 應答을 通하여 알아낸 男便의 年齡分布를 보면 Table 130에서와 같이 30~34歲群이 年齡階層의 構成比率이 가장 높은 28.1%이며 다음은 35~39歲群과 40~44歲群이 各各 23.9%, 17.7%의 比率을 나타내며 20~24歲群은 0.9%에 不過하다.

男便의 年齡分布를 婦人의 경우와 比較할 때 婦人의 年齡構成 比率은 25~29歲群이 많았는데 反하여 男便의 경우는 이보다 年齡이 많은 30~34歲에서 가장 높은 率을 나타냄으로써 男便과 婦人間에 差異가 나타나 있다. 또한 24歲 以下 年少男便의 構成比率이 극히 낮은 것도 指摘할 수 있는데 이는 男便의 初婚年齡이 훨씬 延長된 데 起因하는 것이다.

이를 1967年度 全國家族計劃實態調査에 나타난 男便들의 年齡構成比率과 比較하여 보면 거의 같은 樣相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中 農村地域의 경우 24歲以下群의 年齡構成比率이 本成績보다 현저히 높은 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農村地域의 男子의 初婚年齡이 都市地域의 男子들의 그것보다 빠름을 意味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30. Comparison of Age Distribution of Husbands

Age	M.C.H. survey* Sungdong Gu, 1968	1967 N.K.A.P. survey**		
		Total	Urban	Rural
Under 19	—	0.1	0.1	0.1
20—24	0.9	2.6	0.9	3.5
25—29	13.7	16.5	13.3	18.1
30—34	28.1	24.1	24.9	23.6
35—39	23.9	19.9	21.8	19.0
40—44	17.7	17.3	20.2	15.8
45—	15.7	19.5	18.8	19.9
Total	100.0	100.0	100.0	100.0
(Respondents)	(3,171)	(3,624)	(1,207)	(2,417)

Note : * Maternal and Child Health Survey in Sungdong Gu, 1968
** The National K.A.P. Survey on Family Planning, 1967

B. 教育水準

1. 婦人의 教育水準

婦人의 教育水準은 母子保健에 對한 態度의 形成과 母子保健 事業에 影響을 줄 수 있는 한 要因이며, 家族計劃과 出產力에 密接한 關聯性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本 調査結果에 의한 婦人의 教育水準別 分布를 보면 Table 131에서 보는 바와같이 國民學校의 學歷을 갖인 婦人의 構成比率이 가장 높은 48.3%이며, 다음은 中學校의 20.2%, 高等學校 以上의 23.5%等이며 正規教育을 받지 않은 婦人의 構成比率도 8.0%에 達하였다.

이를 1967年度 全國婦人의 標本値와 比較하면 無學歷群이 本調査 對象婦人보다 많으며 反對로 中學校以上群은 아주 현저하게 적은 率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本調査 對象婦人의 敎育別 分布狀은 都市地域이나 農村地域의 無作爲抽出로 뽑힌 標本婦人과도 현저한 差異를 보였는데 全國의 無作爲抽出標本으로 뽑힌 婦人 또는 全國都市婦人의 敎育程度와 比較할 때 本調査 對象婦人의 그것이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31. Comparison of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Education

Education	M.C.H survey* Sungdong Gu, 1968	1967 N.K.A.P. survey**		
		Total	Urban	Rural
Illiterate	2.5	22.7	8.4	29.9
Can read Korean	5.5	21.1	12.5	25.4
Primary school	48.3	42.8	48.9	39.8
Middle school	20.2	7.1	15.0	3.1
High school	18.7	5.0	11.8	1.7
College or above	4.8	1.3	3.4	0.1
Total	100.0	100.0	100.0	100.0
(Respondents)	(3,171)	(3,624)	(1,207)	(2,417)

Note: * Maternal and Child Health Survey in Sungdong Gu, 1968
** The National K.A.P. Survey on Family Planning, 1967

2. 男便의 敎育水準

男便의 敎育水準은 婦人의 경우와 같이 母子保健에 對한 認識 및 感受性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特히 知識 및 態度와 實踐을 爲한 意思決定의 主導權이 婦人보다 男便에 있을 경우 男便의 敎育水準이 더욱 重要한 意味를 갖게 된다. 婦人을 通하여 밝혀진 이들 男便의 敎育水準은 Table 132에서와 같이 高等學校가 28.8%로서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大學校以上群이 28.6%, 中學校가 22.8%, 國民學校는 17.6% 等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無學群은 2.2%에 不過하여 全般的으로 婦人의 敎育程度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132. Comparison of Distribution of Husbands by Education

Education	M.C.H. survey,* Sungdong Gu, 1968	1967 N.K.A.P survey**		
		Total	Urban	Rural
Illiterate	0.4	6.9	1.7	9.5
Can read Korean	1.8	16.0	5.9	21.1
Primary school	17.6	39.8	26.8	46.3
Middle school	22.8	14.7	21.1	11.5
High school	28.8	14.3	25.4	8.7
College or above	28.6	8.3	19.1	2.9
Total	100.0	100.0	100.0	100.0
(Respondents)	(3,171)	(3,624)	(1,207)	(2,417)

Note. * Maternal and Child Health Survey in Sungdong Gu, 1968
** The National K.A.P. Survey on Family Planning, 1967

이를 1967年度에 全國에서 뽑힌 男便의 敎育程度의 標本値와 比較하여 보면 都市地域이나 農村地域이 모두 本調査對象의 敎育水準보다 낮은率을 보여주고 있으며 農村地域의 경우 無學群도 構成比率이 높은 반면 本調査에 應答한 婦人들의 男便 敎育水準은 特히 高等學校以上 學歷者의 比率에 있어 越等히 高率임을 알 수 있다.

調査對象 婦人의 敎育程度別 百分率分布는 婦人들의 調査當時 年齡에 따라 相當한 差異를 보였다. 어느 年齡에 屬하던 간에 國民學校 程度의 學歷을 갖인 婦人이 最高率을 形成하는 것은 事實이지만 이 比率은 現在年齡이 20~24歲인 群에서 가장 높아 51.3%이며 現在年齡이 많아짐에 따라 漸次로 떨어져서 45~49年齡群에서는 41.6%이다. 이러한 樣相은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學歷群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와는 反對로 文盲이나 國文解得者의 比率은 年齡增加에 따라 거의 規則的으로 上昇함을 볼 수 있다. 即 文盲인 경우 20~24歲群의 1.4%에서 45~49歲群의 16.7%로 增加하였고 國文解得者의 경우 20~24歲群의 1.7%에서 45~49歲群의 16.7%로 增加하고 있다. 大學 或은 專門敎育의 學歷所持者의 年齡群別 百分率은 25~29歲群에서 가장 많은 6.8%를 보였으나 年齡이 增加함에 따라 減少되어 40~44歲群의 0.9%에 達하고 45~49歲群에 屬하는 婦人은 1名도 없었으며 20~24歲群의 3.4%를 形成할 뿐이였다(Table 133參照).

Table 133. Educational Background of Women by Their Current Age

Education	Under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Over 50	Total	Base
Illiterate	—	1.4	0.9	1.8	2.5	8.9	16.7	—	2.5	79
Can read Korean	—	1.7	2.6	3.9	7.6	15.8	16.7	—	5.5	173
Primary school	80.0	51.3	45.3	49.3	49.3	49.6	41.6	100.0	48.3	1,535
Middle school	—	23.6	22.5	20.2	19.4	13.3	8.3	—	20.2	640
High school	20.0	18.6	21.9	19.8	16.8	11.5	16.7	—	18.7	593
University or college	—	3.4	6.8	5.0	4.4	0.9	—	—	4.8	151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171
Base	5	296	892	933	685	347	12	1	3,171	

C. 職　　業

1. 婦人의 職業

婦人의 職業分布는 Table 1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無就業이 92.3%로서 婦人의 大多數가 職業을 갖고 있지 않다. 婦人의 職業에는 販賣從事員이 가장 높은 3.6%이며 其他 職業의 比率은 微微하다.

1966年(12月 1日基準) 經濟活動人口調査에 依한 14~44歲의 就業率은 24.4%(同年齡에 屬하는 全女性에 對한 就業女性의 比率)및 59.6%(同 年齡에 屬하는 女性經濟活動人口에 對한 就業女性의 比率)로서 이 兩 女性就業率은 本調査 成績보다는 현저히 높다. 또한 1967年度 全國에서 無作爲 抽出標本으로 뽑힌 婦人의 就業率과는 비슷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中에서 都市地域의 婦人의 就業率이 本調査 成績보다 약간 높다.

Table 134. Comparison of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Occupation

Occupation	M C.H. survey Sungdong Gu, 1968	1967 N.K.A.P. survey		
		Total	Urban	Rural
Professional, technical and related workers	0.9	1.3	1.2	1.4
Administrative workers	0.0	0.1	0.2	—
Clerical workers	0.2	0.1	0.3	0.1
Sales workers	3.6	3.7	7.2	1.9
Farmers, foresters, fishermen and related workers	0.1	0.9	0.7	1.1
Miners, quarrymen and related workers	—	0.0	0.1	—
Transport and communication workers	—	—	—	—
Craftsmen, production-process workers, and labourers not elsewhere classified	2.0	0.8	1.2	0.5
Service and recreation workers	0.9	0.3	0.5	0.2
Workers not classfiable	0.0	—	—	—
Obscure	0.0	—	—	—
None	92.3	92.8	88.6	94.8
Total	100.0	100.0	100.0	100.0
(Respondents)	(3,171)	(3,624)	(1,207)	(2,417)

2. 男便의 職業

男便의 職業別 構成比率은 Table 1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無職이 8.4%에 不過하며, 大部分의 男便이 職業을 갖고 있고, 技能工, 生産工程從事 및 其他 單純勞動者가 27.8%로 가장 많고 다음은 販賣從事者(23.2%), 事務從事者 (18.5%)의 順으로 되어 있고 그外의 群은 5% 미만으로 各各 나타나고 있다.

1966年 經濟活動人口調査에 依한 20~50歲群에 屬하는 男子의 就業率은 72.0%(同年齡群 男子人口에 對한 就業 比率), 79.3%(同年齡群 男子 經濟活動人口에 對한 就業比率)로서 兩就業率보다 本調査 結果가 就業率이 훨씬 높다.

이와 같이 男便의 就業率이 높은 原因은 比較的 就業率이 낮은 年少層의 男性 一部가 除外되데 있는 것 같다. 또한 1967年度 全國標本値와 거의 비슷한 分布를 보이고 있음은 注目할만 하다.

Table 135. Comparison of Distribution of Husbands by Occupation

Occupation	M.C.H survey Sungdong Gu, 1968	1967 N.K.A.P survey		
		Total	Urban	Rural
Professional, technical and related workers	5.7	3.8	7.1	2.1
Administrative workers	2.3	2.2	5.2	0.6
Clerical workers	18.5	6.2	14.1	2.2
Sales workers	23.2	10.8	22.3	5.0
Farmers, foresters, fishermen and related workers	0.4	48.9	4.6	71.1
Miners, quarrymen and related workers	0.2	0.9	0.7	1.1
Transport and communication workers	5.2	1.9	4.2	0.7
Craftmen, production-process workers and labourers not elsewhere classified	27.8	15.5	26.7	9.9
Service and recreation workers	7.7	3.8	4.7	3.4
Workers not classifiable	0.5	—	—	—
Obscure	0.1	—	—	—
None	8.4	6.0	10.4	3.9
Total	100.0	100.0	100.0	100.0
(Respondents)	(3,171)	(3,624)	(1,207)	(2,417)

D. 宗　敎

1. 婦人의 宗敎

Table 136. Comparison of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Religion.

Religion	M.C.H. survey* Sungdong Gu, 1968	1967 N.K.A.P. survey**		
		Total	Urban	Rural
No religion	64.6	69.8	59.7	75.0
Protestant	10.2	6.8	9.6	5.3
Catholicism	5.7	3.1	4.2	2.5
Buddhism	18.0	16.2	24.6	11.9
Confucianism	0.9	3.8	1.4	5.1
Others	0.6	0.3	0.5	0.2
Total	100.0	100.0	100.0	100.0
(Respondents)	(3,171)	(3,624)	(1,207)	(2,417)

Note. * Maternal and Child Health Survey in Sungdong Gu, 1968
** The National K.A.P. Survey on Family Planning, 1967

婦人의 宗敎別 構成比率은 Table 1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宗敎가 없는 婦人이 全體의 64.6%로서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고, 宗敎를 갖고 있는 婦人은 佛敎가 가장 높은 18.0%이며, 다음은 基督敎의 10.2%, 天主敎의 5.7% 等의 順이며 儒敎는 0.9%에 不過하다.

이를 1967年度 全國標本値와 比較하면 全國의 都市女性의 경우보다 佛敎信者의 比率이 낮고 基督敎(新敎) 및 天主敎信者의 比率이 높아 本調査의 成績과 對照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都市居住 婦人의 敎育程度가 이들의 宗敎에 어느程度의 影響을 미치는가 하는 問題에 對한 解答의 一部를 우리는 Table 137에 提示된 資料에서 얻을 수 있을 것같다.

于先 各 學歷群에 屬하는「宗敎가 없다」고 말하는 婦人의 比率을 보면 文盲群에서 가장 높고 敎育程度의 上昇과 아울러 反對로 比率이 減少함을 본다. 即 敎育의 程度가 높을수록 어떠한 形態의 宗敎이던 갖게되는 頻度가 높아짐을 示唆한다.

이러한 傾向은 天主敎를 믿는 婦人들에 있어서 特히 規則的으로 나타나며 基督敎(新敎)信者 가운데서도 多少 不規則하기는 하나 이를 엿볼 수 있다.

所謂 儒敎를 믿는다고 하는 婦人과「其他 宗敎」를 믿는다는 婦人의 比率은 全體 應答者 3,171名中 極少比率을 차지하며 (0.9% 및 0.6%) 이들의 各 學歷群別 比率의 分布도 不規則하다.

Table 137. Religion of Women by Their Education

Education	None	Protestant	Catholicism	Buddhism	Confu-cianism	Others	Total	Base
Illiterate	83.5	2.5	1.3	12.7	—	—	100.0	79
Can read Korean	66.5	14.4	2.3	15.0	1.2	0.6	100.0	173
Primary school	69.0	7.5	4.8	16.6	1.2	0.9	100.0	1,535
Middle school	61.1	11.6	5.0	20.9	0.8	0.6	100.0	640
High school	58.3	12.3	8.3	20.7	0.2	0.2	100.0	593
University or college	47.6	21.9	14.6	15.2	0.7	—	100.0	151
Total	64.6	10.2	5.7	18.0	0.9	0.6	100.0	3,171
Base	2,050	321	181	571	28	20	3,171	

2. 男便의 宗敎

男便의 宗敎別 構成比率은 Table 1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無宗敎가 68.0%로서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宗敎를 갖고 있는 男便은 역시 婦人의 경우와 같이 佛敎가 가장 높은 16.9%이며, 다음은 基督敎가 8.7%, 天主敎가 5.1%, 等의 順으로 되어 있으며 儒敎는 0.8%에 不過하다. 男便의 宗敎別 分布는 婦人의 그것과 비슷한 樣相을 보이나 有宗敎率은 婦人의 경우보다 낮다.

Table 138. Religion of Husbands

Religion	Number	Per cent
No religion	2,157	68.0
Protestant	276	8.7
Catholicism	160	5.1
Buddhism	536	16.9
Confucianism	25	0.8
Others	17	0.5
Total	3,171	100.0

E. 出生地

1. 婦人의 出生地

婦人의 出生地를 都鄙別로 볼 때 Table 139에서와 같이 農村(面)出身이 全體의 55.6%로서 過半數를 차지하며 다음은 市 出身 31.1%, 邑 出身 11.4%等의 順으로 배열되며 外國에서 出生한 婦人이 1.9%나 된다.

2. 男便의 出生地

男便의 出生地를 婦人의 應答을 通하여 알아 낸 分布를 보면 Table 140에서와 같이 出生地의 構成比率이 婦人의 경우와 大同小異하게 農村出身이 54.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市出身이 32.8%, 邑出身이 11.5% 等의 順이며 外國에서 出生한 男便도 1.3%가 記錄되었다.

Table 139. Birth Place of Respondents

Birth place	Number	Per cent
Myun	1,756	55.6
Ub	362	11.4
City	986	31.1
Foreign countries	62	1.9
Obscure	5	0.2
Total	3,171	100.0

Table 140. Birth Place of Husbands

Birth place	Number	Per cent
Myun	1,715	54.1
Ub	365	11.5
City	1,041	32.8
Foreign countries	41	1.3
Obscure	9	0.3
Total	3,171	100.0

F. 結　婚

總 3,171名의 婦人 應答者中 3.1%인 98名이 再婚을 했었다고 報告하였으며(Table 141) 이들의 結婚期間別 分布는 Table 142와 같다.

Table 141. Experience of Remarriage

Remarriage	Number	Per cent
Experienced	93	3.1
Never	3,073	96.9
Total	3,171	100.0

Table 142. Duration of Marital Life since Remarriage if Any

Duration	Number	Per cent
Less than 1 year	7	7.2
1- 2 years	10	10.2
2- 3	3	3.1
3- 4	6	6.1
4- 5	10	10.2
5-10	31	31.6
10-15	24	24.5
15-20	6	6.1
20-25	1	1.0
25-30	—	
More than 30	—	
Total	98	100.0

初婚 및 再婚과 三婚을 包含하는 모든 婚姻에 依한 結婚期間別 應答婦人의 分布는 Table 143와 Table 144에서 볼 수 있다.

Table 143. Duration of Marital Life with First Marriage

Duration	Number	Per cent
Less than 1 year	104	3.3
1- 2 years	209	6.6
2- 3	213	6.7
3- 4	190	6.0
4- 5	213	6.7
5-10	748	23.6
10-15	698	22.0
15-20	427	13.5
20-25	304	9.6
25-30	65	2.0
More than 30	—	—
Total	3,171	100.0

Table 144. Duration of Marital Life by All (1st, 2nd, etc.) Marriage

Duration	Number	Per cent
Less than 1 year	86	2.7
1- 2 years	196	6.2
2- 3	194	6.1
3- 4	189	6.0
4- 5	203	6.4
5-10	759	23.9
10-15	724	22.8
15-20	447	14.1

20-25	308	9.7
25-30	65	2.1
More than 30	—	—
Total	3,171	100.0

G. 家口의 構成

調査받은 婦人 (3,171名)의 거의 80%에 該當하는 2,518名은 內外(夫婦)와 子女들로만 家口를 이루고 있고 6%에 該當하는 180名은 夫婦만의 家口를 이루고 있다고 報告되었으며 0.3%에 該當하는 9名의 婦人은 自己自身과 아이들만으로 自己의 家口가 이루워져 있음을 報告하였음을 보아 거의 85%가 所謂 核家族을 形成하고 있고 約 10%가 延長家族을 이루고 있음은 延長家族이 거의 모든 家口를 이루웠으리라고 믿어지는 過去에 比하여 이 地域은 核家族化의 急速한 過程을 밟고 있음이 짐작된다(Table 145).

Table 145. Composition of Household

Family	Number	Per cent
Respondent's couples only	280	5.7
Couples and their children	2,518	79.4
Couples, their children and parents	200	6.3
Couples, their children, parents and other relatives	109	3.4
Respondent alone	—	—
Respondent and her children	9	0.3
Other composition	155	4.9
Total	3,171	100.0

XIV. 總括 및 結論

서울特別市 城東區 金北洞 一圓에 居住하는 婦人들에게 將次 母子保健「서비스」를 提供할 것을 前提로하여 이러한 事業組織의 基礎가 되는 資料를 蒐集코자 本 硏究會는 1968年 6月부터 10月에 이르는 期間 金北洞에 居住하는 有配偶婦人 全員을 대상으로 調査를 실시하였다.

本調査는 一種의 實態調査로서 婦人들의 母子保健에 關한 知識과 態度 및 實踐에 重點을 두어 앞으로 現在 進行되고 있는 家族計劃事業과의 統合運營의 可能性을 摸索하는 角度에서 資料의 分析을 試圖하였다.

本調査에서 얻은 重要所見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A. 對象婦人의 特性

金北洞一帶의 旣婚 有配偶婦人의 年齡構造를 全國의 都市나 農村의 그것과 比較할 때 全般的으로 若年層이 많은 것이 特徵이며 男便과의 年齡差도 全國値보다 높고 男便의 年齡 또한 全國의 都市나 農村에 比해서 높아 都市化傾向에 있어서의 特色의 一端을 엿보였다.

調査對象婦人의 教育程度 亦是 全國의 都市地域이나 農村地域보다 현저하게 높고 特히 高等學校

以上의 學歷을 가진 婦人의 比率이 눈에 띄이게 높다. 또한 應答婦人의 現在年齡이 낮을수록 敎育程度가 높은 것도 特徵이라 하겠으나 이것은 城東區 金北洞에 局限될 現象은 아니라 하겠다.

婦人들의 敎育程度와 宗敎와는 서로 有機的인 關係가 있어 敎育의 程度가 높을수록 宗敎를 갖는 比率도 높아짐이 確認되었다.

本 調査對象婦人의 初婚年齡은 平均 21.7세였으며 男便은 平均 26.3세에 처음으로 結婚한 것을 알게 되었다.

金北洞 一圓에 居住하는 有配偶婦人의 大部分은 全國의 都市나 農村地域에 거주하는 婦人들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職業을 갖고 있지 않으며 男便의 경우 全國의 都市地域에 比해 그 就業率이 높다.

應答婦人의 半數以上이 農村出身이었으며 男便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人口의 急速한 都市化現象의 一端을 뚜렷이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總 應答婦人中 再婚을 경험한 婦人은 3%에 不過하여 西歐諸國의 再婚率보다 절대적으로 낮음이 確認되었다.

大部分의 婦人(80%)은 核家族으로 構成된 家庭을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의 過去의 趨勢와 比할 때 家族制度의 現代化過程이 이地域에서 빠른速度로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B. 社會·文化生活

婦人들이 新聞이나「라디오」等 情報「미디아」에 接觸하는 機會는 매우 많은 反面 社會,·文化團體에의 加入率은 매우 낮음을 알게 되었고 新聞이나「라디오」에는 接觸하되 家庭內에서의 讀書나 敎養活動의 低調로서 生活技術의 習得을 爲한 系統的인 努力이 缺如되었음이 判明되었다.

「텔레비젼」을 보는 婦人의 比率은 매우 낮아 意思나 情報傳達의 手段으로서「텔레비젼」이 가진 役割은 當分間 매우 微弱함을 알 수 있다.

C. 姙娠과 姙娠消耗

모든 年齡層의 婦人을 網羅한 現在 姙娠率은 12.8%로 계산되었으며 2回, 3回 및 4回 姙娠을 經驗하였다는 婦人이 가장 많았다. 全國의 資料에 比해서 1回 乃至 3回의 少數의 姙娠을 經驗한 婦人의 比率이 현저히 높고 多數의 姙娠을 경험한 婦人의 比率은 낮아 出産調節努力의 結果가 엿보였다.

姙娠經驗率은 年齡의 增加와 正相關關係를, 敎育程度의 上昇과는 逆相關關係를 갖음이 再確認되었으며 姙娠消耗率로서 1人當 平均 死産 0.03件, 平均 自然流産 0.22件, 平均 人工姙娠中絶 0.95件이 記錄되었으며 平均 出生 2.92件 및 平均 現在 姙娠 0.13件과 合하면 平均 總 姙娠 4.25件과 一致함이 判明되었다.

姙娠前期에 姙婦가 경험한 合倂症으로는 甚한 구토, 便秘, 頭痛等이 가장 흔히 記錄되었으며 姙娠後期의 合倂症으로는「다리의 浮症」, 嘔吐, 便秘, 顏面浮症等의 順으로 報告되었다.

D. 分娩環境과 諸 與件

最終出生兒의 64%는 家庭에서 分娩되고 33%가 病·醫院에서 分娩되었으며 生活程度가 높을수록 또한 敎育程度가 높을수록 病·醫院分娩의 頻度가 잦으며 自家分娩인 경우 아기를 받은「방포」로서「세멘트」包袋,「비닐」布, 푸대, 新聞紙等 不潔한 材料가 흔히 使用되고 있으며 아무런 材料도 깔지 못하고 分娩을 하는 例도 相當數가 報告되어 母性과 新生兒의 健康管理上 적지 않은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產婦人科專門醫, 一般醫 또는 助產員等 助產關係 專門職業人이 分娩을 介助한 경우가 全體分娩例數의 半數를 넘게 된 것은 韓國戰爭直後의 우리나라 都市에서의 形便 그리고 農村地域의 現狀보다는 훨씬 上位에 있음을 否定할 수 없으나 앞으로 分娩介助面에 있어서의 保健水準의 向上을 위한 劃期的인 措置가 있을 것이 要望된다.

또한 分娩介助人의 選擇에는 婦人들의 生活程度와 敎育程度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確認되었으며 一般敎育水準의 向上과 國民所得의 增加와 아울러 專門的인 分娩介助를 받는 家庭의 數가 늘어날것이 期待되는 바 敎育程度가 낮고 所得水準이 낮은 家庭을 重點的으로 도울 수 있는 母子保健施策의 必要性이 本 研究의 資料에 依하여 强調되는 바이다.

其他 分娩時 臍帶를 切斷하는데 使用된 器具의 不潔함과 非合理性이 本 調査의 結果 드러났으며 胎盤의 處理方式에 있어서의 非衛生性도 指摘되었다.

産兒에 所要된 經費支出의 水準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E. 初經, 初產 및 不姙

이들 婦人의 平均 初經年齡은 15.5歲로서 數年前의 研究結果와 比하면 多少 낮은 感이 있으며 平均 23세에 初產을 경험한 것으로 計算되었으며 應答者 自身의 認識에 依한 不姙率은 7%에서 11%에 이르는 範圍內에 있는 것으로 報告되었다.

F. 姙娠과 出產에 對한 知識과 態度

婦人들의 壓倒的인 多數(64%)에 있어서 姙娠과 出產에 關한 知識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報告되었으나 그 知識의 正確性에는 많은 疑心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知識에 自信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婦人은 少數(25%)에 不過하여 保健敎育의 擴充의 必要性이 强調된다.

應答婦人들의 姙娠과 分娩에 對한 知識의 程度는 敎育水準에 따라 높다는 事實로 미루어 볼 때 本 分野에 있어서의 保健敎育은 正規敎育의 機會를 갖지 못하였거나 겨우 義務敎育 밖에는 받지 못한 婦人層을 對象으로 하여 集中되어야만 그 效果를 올릴 수 있으며 知識源으로서「시어머니」나「어머니」가 맡고 있는 役割의 比重이 壓倒的으로 큼에 비추어 姙產婦自身에 對한 敎育의 强化가 必要함은 勿論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上位世代 即「시어머니」나「어머니」에 對한 保健敎育「프로그람」이 組織, 運營될 때 母性의 知識水準을 올리기 위한 敎育效果가 累乘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姙產婦의 姙娠生理와 出產에 관한 知識源으로서 保健所나「매스·콤」이 차지하는 位置가 매우 微弱함을 볼 때 우리나라 保健敎育이 걸어야 할 길의 向方을 얻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全體 調査對象婦人의 92%에 該當하는 應答者가 姙娠, 分娩, 產褥에 關한 專門的인 指導의 必要性을 切感하고 있는데 反하여 이러한 指導나 技術的인「써비스」를 提供하는 機關이나 場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大部分으로(77%) 大多數의 婦人들은 保健所의 役割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설사 保健所나 保健支所의 役割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相當數의 婦人이(16%) 自己의 健康相談이나 產前後保護에 있서 保健所를 利用할 意思가 없다고 言明한 事實은 保健醫療網의 組織 및 運營을 담당하는 保健當局에 대한 一大警鐘이라고 看做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反하여 앞으로 出產이 있을 경우 病·醫院에서 分娩하였으면 하는 希望을 가진 婦人이 91%에 達하였으나 現在 우리나라의 病·醫院이 母性 自身의 保健知識 涵養과 產前·後 指導 및 管理에 注力하는 機關이 아님을 記憶할 必要가 있다.

G. 產前受診 및 產前後 攝食

全體婦人의 53%가 病院에서 產前 診療를 받은 일이 없고 98%가 出產前에 保健所를 訪問한 일이 없음은 產前管理를 强調 實踐하고 있는 諸外國의 例에 準하여 볼 때 이 分野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놀라울 程度의 後進性을 露呈하는 事實이 아닐 수 없다.

姙娠中에 病院에서 診療를 받았다 해도 大部分은 1回 診察에 그치고 있어 充分한 產前管理라고는 보기 어렵고 助產員이나 漢醫院, 保健所를 合쳐도 受診率은 僅少 51%에 不過하여 甚히 不合理한 產前管理가 進行되거나 「產前管理不在」가 많은 數의 婦人에게 適用될 수 있는 形容詞가 아닌가 한다.

婦人의 敎育程度는 產前受診率에 銳敏하게 作用하며 該當產兒의 次順이 늦을수록 產前受診率이 낮아 짐을 觀察할 때 低學歷群과 多產婦人에게 產前管理 및 保護의 必要性을 認識시키고 이것을 實踐에 옮길 마음의 決定을 促求하도록 將次의 保健敎育과 姙娠 및 產前管理 「써비스」의 焦點을 맞출 必要가 있다고 본다.

產前診療에 따르는 經費支出은 敎育程度와 거의 正比例하고 또한 生活程度에 따라 支出額도 增加함은 오히려 當然한 現象이라고 하겠으나 敎育程度가 낮고 단 1원의 經費도 支出치 못한 婦人에 對한 社會保障策이 時急하다. 韓國 都市婦人의 產前後 攝食에 關한 知識과 態度에는 科學性이 몹시 缺加되어 있음이 判明되었으며 姙娠中 또는 產後에 禁忌하여야 할 食品에 偏見을 가지고 있는 婦人이 많으며 따라서 高度의 榮養價가 있는 食品과 多量의 熱量이 必要한 이 時期에 姙婦나 產母의 食品에 關한 不確實한 知識과 애매한 態度 때문에 榮養攝取가 極히 不良함이 짐작되며 本資料는 母性이나 嬰兒의 健康에 미칠 短期的 또는 長期的 效果가 極히 劣惡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看做된다.

H. 出生經驗 및 現存子女數

全體 應答婦人은 平均 2.9回의 出生을 經驗하였으며 出生經驗이 없는 婦人은 7.2%로 姙娠의 經驗이 없는 婦人의 比率 2.5%보다 훨씬 높다.

1964年에 城東區一圓에서 얻은 平均 出生回數에 比하여 25歲以上 年齡群에서 平均値의 刮目할 만한 下落을 보여 이 地域에서 出產力低下가 일어나고 있는 證左의 하나로 看做된다.

出生經驗에 있어 少數回(1—3回) 出生經驗率은 應答者의 現在年齡이 높을 수록 規則的으로 減少되고 反對로 多數回(4回以上) 出生經驗率은 現在年齡이 높을수록 大幅 增加하며 敎育程度가 높을수록 婦人들이 經驗한 平均出生回數는 규칙적으로 減少됨을 觀察하였다.

1964年에 비하여 國民學校以上 各 學歷群에서 平均 0.1回의 減少를 본 것은 出產力低下의 한 證據라고 생각되며 이 地域에서의 集中的인 家族計劃刺戟投與의 結果가 아닌가 한다.

本 硏究의 對象이 된 婦人 3,171名은 平均 1.5名의 男兒와 1.4名의 女兒를 出生한 것이 判明되었으며 男兒出生을 經驗치 않은 婦人은 22%이며 女兒出生을 經驗치 않은 부인은 28%에 達하였다.

總 3,171名의 婦人이 經驗한 子女의 出生과 死亡數의 平均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區　分	男	女	計
現存子女數	1.36	1.27	2.64
死亡子女數	0.15	0.13	0.27
出 生 兒 數	1.52	1.40	2.91

最終出生兒中 死亡兒의 死亡原因으로는 「未熟」이 으뜸가고 다음으로는 小兒설사, 肺炎, 「간기」(痙攣) 等이 記錄되었다.

I. 嬰兒期 食品 및 榮養

母乳依存의 嬰兒榮養, 牛乳 및 嬰兒食品의 普及不振, 一般家庭의 冷藏施設의 不備等이 主要問題點으로 提起된다.

母乳에 依存하는 育兒方式은 母性의 敎育程度에 따라서 그 樣相을 달리함을 알게 되었는데 婦人의 學歷이 높아감에 따라 母乳爲主의 榮養은 그 頻度가 漸減하여 大學, 專門敎育을 받은 母性의 62%가 嬰兒期 後半에 이르기 까지 母乳로 哺育함을 觀察하였으나 설사 離乳를 하였을 경우라도 充分한 榮養價를 가진 食品으로 代置하지 못하고 있어 嬰兒榮養은 매우 不滿足한 狀態에 있음이 드러났다.

大部分의 母性은 嬰兒의 젖떼는 時期를 把握하지 못하고 있어 調査對象 嬰兒中 離乳가 끝난 1,998例에서 87%가 1年後에야 完全히 母乳를 떼어 「밥」等 음식으로 전환하였는데 6個月以內의 離乳, 그리고 7個月부터 9個月까지의 離乳率은 各 3%정도에 不過하였다.

嬰兒離乳에 있어서 母性의 實踐力이 以上과 같이 매우 薄弱한 事實은 離乳에 대한 婦人의 知識이나 意見이 매우 不確實한 것으로도 反證이 된다. 生後 1年이 지난 다음에 離乳를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 婦人은 文盲群의 91%에서 敎育정도가 上昇함에 따라 점차로 줄어들어 大學·專門敎育群의 47.3%에 達하는데 長期哺乳가 母體 및 嬰兒의 健康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認識하는 婦人의 比率이 한심할 정도로 낮음을 알 수 있다.

敎育水準이 높은 婦人가운데는 哺乳中 또는 離乳後 「特殊食品」으로 嬰兒의 榮養을 보충하고 있는데 가장 흔히 使用하는 食品은 人工乳外에 달걀, 빵, 쌀죽等이 있는데 牧場牛乳나 羊乳를 使用하는 例는 드물게 報告되었다.

J. 豫防接種에 관한 知識과 態度

大部分의 婦人은 豫防接種의 必要性을 인식하고 있으나 極少數이나마 接種에 依한 事故死等을 理由로 接種을 反對하는 例도 있어 死因에 대한 科學的인 糾明과 强力한 啓蒙, 敎育의 必要性이 시사된다.

豫防接種의 必要性을 이같이 大部分의 婦人이 인정하나 約 24%가량은 어디서 接種을 받아야 할지 모르고 있으며 婦人들의 約 38%는 D.P.T. 注射 및 B.C.G.接種의 이름이나 使用目的을 모르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防疫이나 母子保健上의 重大問題가 아닐 수 없다. 天然痘나 俗稱 「小兒痲痺」에 對한 知識은 普遍化된 것 같았다. 各種 豫防接種에 대한 지식의 水準은 婦人의 敎育程度에 따라 올라감으로 敎育水準이 낮은 婦人들에 대하여 啓蒙과 敎育이 集中될 必要를 切感한다.

이러한 啓蒙과 敎育의 質的內容도 매우 重要하며 各 豫防接種의 接種時期와 反復回數에 대한 정확한 知識이 미흡함이 本調査의 結果 分明한 事實로 나타났다.

端的인 例로는 23%나 되는 兒童은 生後 1年이 넘도록 아무런 豫防接種도 받지 않고 있으며 生後 1年이 넘도록 56%와 40%에 該當하는 兒童이 D.P.T.와 天然痘 接種을 받지 않고 있다는 事實을 들 수 있다.

K. 家族計劃 및 出生申告

家族計劃 實踐率은 28%였으며 같은 時期의 全國都市地域의 實踐率 26%보다 높았으며 또한 實踐

經驗率 11.2%는 全國 都市地域의 實踐經驗率 9.6%보다 높은게 分明하다.

現在 實踐하고 있는 避姙方法으로는 먹는 피임약이 가장 많이 利用되고 있으며 子宮內장치가 다음가고 「콘돔」도 相當率을 보였다(18%).

法定期日內에 出生을 申告하는 率은 母性의 敎育程度가 높을수록 높아지나 一般的으로 期日內 申告가 極히 不良하여 우리나라 出產力의 測定에 가로놓인 큰 障壁이 本研究 對象地域에도 殘存함을 確認하였다.

感謝의 말씀

本 論文을 擱筆함에 있어 本研究를 鞭韃하여주신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院長 金仁達敎授, 美人口協會 여러분 그리고 人口問題研究所 邊時敏 所長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English Summary>

A Study on Status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an Urban Area

Kwon, E-Hyock, M.D.
Kim, Tae-Ryong, M.D.
Park, Hyung-Jong, M.D.
Kang, Kil-Won, M.D.
Hong, Jae-Woong, M.D.
Park, Soon-Young, M.P.H.
Lee, Yong-Wook, M.P.H.
Yun, Bong-Ja, M.P.H.

This survey conducted by the Urban Population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aims at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of the mothers and children, who are resident in Kumbuk Dong, Sungdong Gu, Seoul City. This study was conducted in preparation for a pilot MCH service to be staged in the same area in the near future.

The field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in Kumbuk Dong, Seoul City from June to October of 1968. The field survey contacted married women residing in the area. Major items of observation included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in regard to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family planning, in addition to the basic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women.

One of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tract baseline data upon which to build integrated family planning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for the future in Korea.

Definitions of the terms used in this study were adjusted so that they could serve the practical purpose portraying the present status in quantitative terms. Therefore, these terms do not necessarily coincide with those used in gynecological or pediatric studies, for example:

1. Birth includes normal full-term and premature births.
2. Full-term delivery: birth bewteen 38th ($9^1/_2$ months) and 42nd ($10\ ^1/_4$) week of pregnancy.
3. Premature delivery: birth between 28th (7 months) and 38th ($9^1/_2$ months) week of pregnancy.
4. Still birth: delivery of dead baby after 28th (7 months) week of pregnancy.
5. Induced abortion: artificial interruption of pregnancy regardless of duration of pregnancy.
6. Spontaneous abortion: pregnancy naturally interrupted before 28th (7 months) week from conception.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 Basic Characteristics of Women

1. Age

The interviewees were younger than the national average for urban married females. There was a great age span difference from their husbands'.age, and their husbands' age were older than national average for urban married males.

2. Education

The women's educational level was higher than Korea's national averages for married females. A large proportion had received a high school education or above, however, the older the age of the interviewee corresponded directly to a lower educational level.

3. Age at Marrriage

Women in the study area were found to be marrying at an average age of 21.7 years, while their husbands at an average age of 26.3 years.

4. Occupation

Most of the women in the study area, as in the case of the women both in the urban and rural areas throughout the country, did not have any occupation, while nonemployment on the part of their husbands seemed to be much lower than those for the whole of Korea.

5. Place of Birth

More than half of the women and their husbands investigated had.been born in rural areas, indicating a rapid movement of rural population into urban Seoul in less than a generation.

6. Family Structure

Only 3 per cent of the women under investigation reported being married for the second or more time. Most (about.80 per cent) of the women were found to be a part of nuclear families, suggesting a rapid transition of family patterns.

7. Religion

The higher the education, the larger were the proportions of women having a socially recognized religion.

B. Social and Cultural Life

Whereas most of the women in the study area were frequently exposed to such communication media as newspaper and radio, their participation in organized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was very rare. Also, they were found to lack any systematic efforts to absorb advanced techniques of living.

A very low percentage of the women investigated had any opportunity to watch television. This indicates low ability for television to convey information efficiently to the population.

C. Pregnancy and Pregnancy Wastage

A current pregnancy rate of 12.8 per cent is applicable to all women. Those having experienced 2, 3 or 4 pregnancies were the most frequent. Compared to national data, the percentages of those women who have experienced low frequencies (1, 2 or 3 times) of pregnancy were much higher than those experiencing frequent pregnancies.

Rate of experiencing pregnancy rose with advancing age and declined with rising educational levels.

Wastage of pregnancy: Still-births averaged 0.03 per woman, spontaneous abortions averaged 0.22, and induced abortions averaged 0.95. Since live-births averaged 2.92 and current pregnancies 0.13, these averages total 4.25, which has coincided with the average for total pregnancies.

Major complications experienced by the women during early pregnancy were servere vomiting, constipation and headache (ranking in this order). "Edema on the lower extremities", nausea and vomiting and "edema on the face" were listed as the major complications during the second half of pregnancy.

D. Environmental Conditions with Regard to Delivery

Sixty-four per cent of the last-born babies were reported to have been delivered at home, while 33 per cent were delivered at hospitals or clinics. The percentage of hospital or clinic deliveries rose with rising educational levels of the women and rising standard of living assessed by both the interviewers and respondents themselves. In the majority of the cases of home delivery such unsanitary materials as cement bags, jute bags, vinyl papers and newspapers were used for receiving the baby.

The fact that more than fifty per cent of all deliveries reported had been attended by such professionals as obstetricians, general practitioners or midwives indicates a drastic improvement in the situations since the Korean War, but at the same time, points to the acute necessity of further improving the situation through appropriate health measures. Again in the selection of delivery attendants, educational background and living standards of the women seemed to play very important roles.

In addition to the above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disclosed the unsanitary instruments that are frequently used to cut the umbilical cords and unsanitary methods in which the placenta is disposed of. In general the level of expenditures involved in the births also were found to be pessimistically low.

E. Menarche, First Delivery and Sterility

The mean age for menarche has been assessed at 15.5. This mean is somewhat lower than the mean ages for menarche from studies published previously. The women in the study area experienced their first deliveries at an average age of 23 years.

Sterility in the opinion of the respondents themsleves appeared to range from 7 per cent to 11 per cent.

F. Knowledge and Attitude with Regard to Pregnancy and Delivery

An overwhelming majority (64 per cent) of the women investigated reported having some knowledge about pregnancy and delivery, while only 25 per cent had "confidence" in the knowledge they had. This suggests an immediate need for strengthening health education and points to the desirability of directing such health education towards the low education strata first, since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matters related to reproductive physiology rose with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s.

The fact that mother-in-law or their own mothers were the most frequently quoted sources of the women's knowledge about matters related to pregnancy and delivery suggests the need for reinforcing the existing health education system of the government and that such reinforcement should take place in such a way as to include the mothers-in-law and the mothers in the target population.

In sources of the women's knowledge, it was discovered that health centers and mass-communication methods have so far played very insignificant roles. This seems to clearly point to the directives which are to be taken in health education service in Korea in the immediate future.

Contrary to the low degree of knowledge possessed by the women, a great majority of the women (92 per cent) expressed a desire to learn more about the subject matter in question. Again, in contrast with such a high "desire" level, it was surprising to find that as many as 77 per cent of the women did not know about the existence of a governmental facility providing MCH services. If they knew of the health centers, a considerable percentage (16 per cent) stated having no intention at all to utilize such centers for consultation about their health problems. This information, together with the other findings about the health network in Korea, constitutes a warning to health planners, especially those of the health services for mothers and children.

A relatively high percentage of women (91 per cent) clearly expressed their desire for delivering babies at hospitals or clinics. It should be remembered, however, that most of the hospitals and clinics in our country are not prepared for giving systematic pre- and post-natal care and do not have sufficiently organized services for educating their patients.

G. Prenatal Consultation and Pre- and Post-natal Diet

More than half (53 per cent) of the women had no experience of consultation with doctors during the prenatal period, while 98 per cent have never visited health centers for prenatal care. This fact poses a problem for all the health centers in the country to consider seriously, in terms of their roles to be evaluated in conjunction with the nation's need of health services for mothers and children.

Of those women reported having undergone prenatal care, the majority were those who had such care only once throughout the whole period of pregnancy. Only 51 per cent reported receiving prenatal examinations and this includes those who visited midwives and "herb" doctors.

The rate of receiving prenatal examinations seems to be very sensitive to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women and to the birth order of the baby in question. The smaller the ordinal number of the birth and the higher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mother, the more frequent

was such examination. Therefor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future government health services should be so designed that they concentrate on the low education and multipara strata.

The amount of expenditures involved in prenatal care naturally increased with the rising standard of living and higher educational career of the mother. Thus, a social security measure is indispensable for those women who have little formal education and who are not capable of spending money for their care before and after delivery.

Knowledge and attitude with regard to food and diet during and after pregnancy was insufficient and unreasonable. Many of the women investigated had prejudices and biased knowledge about food taken during and after pregnancy, which will no doubt lead to insufficient nutrition for both the mother and infant. In addition, many of the mothers had "taboos" about food taken during this period, which were unscientific and unreasonable.

H. Live-Birth and Number of Living Children

The women under study had an average 2.9 live-births. Those who had no experience of live-births or pregeancy rated 7.2 per cent and 2.5 per cent, respectively. Among the women aged 25 or more the average number of live-births experienced demonstrated a remarkable drop from the average obtained throughout Sungdong Gu, Seoul in 1964, indicating that a substantial decline in fertility is taking place in the area. Fertility has declined since 1964 by 0.1 on the average with those women who have had primary school or higher education, reflecting the effect of family planning service concentrated in this area during this period.

The average number of births and deaths of children born to the total 3,171 wome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lassification	Male	Female	Total
Number of living children	1.36	1.27	2.64
Number of children who died after birth	0.15	0.13	0.27
Number of births	1.52	1.40	2.91

Main causes of death reported for the children born last to the 3,171 women are prematurity, diarrhea, pneumonia and "convulsion" ranking in this order in terms of frequency.

I. Food and Nutrition during Infancy

Infant nutrition is dependent solely on breast feeding. A limited supply of cow-milk, milk products and baby food and a limited availability of refrigerators to general homes can be quoted as major problems.

As many as 62 per cent of the women with college or a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reported having breast fed their infants to the end of infancy and such percentage, of course, increased with the downward progression in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mothers. If they weaned their babies earlier they could hardly substitute their breast feeding with food of sufficient nutritional value.

Most of the mothers did not have any knowledge about the appropriate time for weaning: 91 per cent of those who could not read or write thought that weaning should take place only after 12 months from birth, but such a percentage declined with the rising educational standard of the mothers, to reach 47.3 per cent of the mothers with college or a higher education.

Major food for infants listed by the "highly" educated women include processed milk products, eggs, bread and rice gruel. Very few reported having used cow milk or goat milk.

J. Knowledge and Attitude Regarding Immunization for Children

Most of the women appear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for immunizing their children early in their childhood. A small proportion, however, were definitely against such practices on the reason that immunization was not only harmful but sometimes led to the death of their children.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clarify the cause of deaths, if any, on a scientific basis and to strengthen health education to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the purpose of government-sponsored vaccinations of various kinds.

While the purpose of immunization is accepted by an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women investigated, quite a few (24 per cent) did not even know where to get such services. About 38 per cent did not know the name D.P.T. and B.C.G. vaccines and their purposes, while smallpox and poliomyelitis vaccines appeared to be known by nearly all women respondents.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vaccination varied greatly with the differing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women, indicating the importance of providing health education services of reliable quality to the low education strata. Such a necessity is underlined by our finding that as many as 23 per cent of the mothers did not give any vaccine to their children until they were 12 months old, and that 56 per cent and 40 per cent of them did not give D.P.T. and small pox vaccines, respectively, until after their children wear 1 year of age.

K. Family Planning and Birth Registration

Twenty-eight per cent of the women were found to be practicing some form of contraception. This percentage was higher than the 26 per cent assessed for the women in the urban areas throughout the country at about the same time (by the Family Planning Evaluation Unit,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Eleven per cent of the women in the study area reported having practiced contraception in the past and this is well above 9.6 per cent for the urban areas of the country.

The most frequent method of contraception used in the area was the oral pill, while intra-uterine contraception loops and condoms ranked next.

Generally, a very low percentage of women registered the birth of their last-born children within 15 days, but such percentage of early registration rose with the rising educational level of the mothers.

Acknowledgement

The authors would like to express their sincere gratitude to Dr. In Dal Kim, Dean of th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opulation Council; and Dr. Si-Min Pyun,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for the wholehearted cooperation they have extended to us to make this study possible.